



충남도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 ‘주먹구구’

일부 선정 업체 전문가 없거나, 이름만 빌리는 사례도... 전문·신뢰성 떨어져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비례)은 4일 충남도의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제기했다.

학술용역을 수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전문성 평가가 허술해 서류만 잘 꾸미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정책 연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김연 의원(비례)에 따르면 충남도가 학술용역 사업자 선정에 대해 평가하는 항목은 크게 기술평가와 입찰가격으로 나뉜다.

기술평가에 80점을, 입찰가격에 20점을 부여해 최종 학술용역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기준이다.

문제는 평가 기준에서 전문성을 알아보는 기술 분야의 항목이 방대한데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 연구기관의 경영 상태나 수입도 같은 불필요한 항목에 8점을 부여하는가 하면, 설계의 적정성과 결과분석 방안 등 비슷한 항목에 무려 55점을 편성했다.

반면 연구자의 연구수행 실적이나 전문성 등 중요분야에 대해서는 6점을 부여하는 데 그쳤다.

타 기관의 경우 연구수행 실적이나 경험, 전문성에 각각 1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배정하는 것과 대조를 보였다.

충남도의 이러한 평가기준은 고스란히 전문성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자칫 연구기관의 배만 불러주는 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에 학술용역을 수탁받아 지난 8월 연구를 마친 A연구기관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없었는데도 도는 이 학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4000만원을 지출했다.

전문가 없이 학술 용역이 이뤄진 셈이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연구 결과의 지표인 설문 자체도 엉터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B 연구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연구 책임자는 다른 대학 교수 이름을 올리는 등 책임 기관과 연구자 소속이 일치하지 않아 학술용역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했다.

김 의원은 “계약 당사자인 B 연구기관에는 과제 관련 전문가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업이 계약을 작성하는데 회사명은 그대로 쓰고, 대표자는 다른 회사 사장 이름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전문 인력도 없으면서 연구용역 입찰에 응할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도의 허술한 평가 항목이 이 같은 문제를 유발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학술용역은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타당성조차 확보되지 못한다”며 “선정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조절해 신뢰 높은 학술용역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이지용기자

국민안전처 정책홍보 ‘제자리’

“실패·인지도 낮아”... 36.3% 호감 가지고 있지 않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민안전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거주 10~60대 남녀 11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국민안전처에 대해 들어왔다고 대답한 반면, 28.4%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국민은 8.4%에 불과했으며, 국민안전처 정책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2.9%로, 정책홍보나 정책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안전처에 대한 호감도 질문에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6.3%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19.1%)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국민안전처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는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이 11.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유대운 의원은, “국민안전처는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범한 기구인데, 호감도나 신뢰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국민안전처에 대한 인지도도 별로 높지 않은데 정책 인지도는 이보다 더 낮다”면서, “안전에 대한 정책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국민안전처의 홍보예산은 27억 2800만원으로, 지난달 말까지 14억 3200만원이 지출됐다. 이 설문조사는 국민안전처 발주로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에서 수행하는 ‘2015년 국민안전처 정책홍보 컨설팅 및 실행 용역’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전국 거주 10~60대 남녀 11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서베이 방법으로 수행했으며, 응답률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5%p이다.

이정복기자



대전현충원, 추석 맞이 벌초 실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에 맞아 전국각지의 참배객 및 유족들이 대전현충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4일 국립대전현충원(원장 권윤정)은 정문 화단과 주도로변을 새롭게 정비하고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와 성묘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묘역에 걸쳐 벌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추석 손님맞이에 한창이다.



“국방신뢰성센터 유치로 새 발전 계기 될 것”

권 시장, 시민과 아침동행... “대덕구 소외론 있을수 없어”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5일 대덕구 장동계곡산에서 ‘제8회 시민과 아침동행’을 갖고 국방기술품 집원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이하 국방신뢰성센터)를 활용한 국방산업 발전 방향과 대전산업단지 재생계획 등 시장 구상에 대해 시민과 대화했다.

이날 권 시장은 “과거 군수시랑 부의 대전 이전 때 관련 산업체 이주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국방신뢰성센터 유치를 기회로 국방산업단지 같은 연관 산업입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신뢰성센터의 대덕구 입

지 결정은 ‘대덕구 소외론’을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계기를 강조했다.

권 시장은 “민선 6기 시작부터 그동안 소외지역으로 꼽힌 대덕구의 발전을 고민했고, 국방신뢰성센터 입지 선정도 이 중 하나”라며 “유관기관이 많은 대덕특구와의 거리, 대덕구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덕구 상서동을 적지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시장은 “그동안 필요성을 절감하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대전산단 재생사업이 최근 본격 시작됐다”며 “서구와 연결되는 다리 건설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행복

주택을 건설하는 등 1차 사업을 2018년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권 시장은 이날 계곡산으로 조성하는 문화공원사업 추진 상황과 시민구단인 대전시티즌의 성적 향상 방안 등에 다양한 시정에 대해 시민과 대화했다.

한편,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아침동행에서 권 시장과 시민들은 장동산립육장의 황톳길을 함께 걸으며, 산책 후에는 숲의 분위기에 걸 맞는 가야금 및 대금연주를 감상하고 시민과 함께 추억의 이벤트인 모래주머니 던지기를 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영호 기자

ACE 고객부 인정 고객부 인정
나눔고교 3.0
 사회에 공헌하는 **창의인재 양성**
플러시

세계 최고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고재남 미디어

다양과 더불어 살고
 비판적 공민하게
 새로운 것을 도출하는
 융합형 인재

수원대학교가
 사회에 공헌하는
 창의인재를 양성합니다.

고재남 창조경영학부 10학년
 2015 국제인재육성사업 ‘제8회 나눔고교’ 미디어

201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5년 9월 9일(수) ~ 9월 15일(월) 18:00
 입학상담 : 입학팀 041-530-4945 / 입학사정관실 041-530-4950 / 홈페이지 http://ipis.chu.ac.kr

SCA 신원씨아이
 신원씨아이
 2015년 9월 7일

충청권 학생들 정신건강 ‘빨간불’

초중고 학생 25만여명 관심군 분류... 자살생각 2만여명 조사

관심군 학생의 비율이 충청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검사결과,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4.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4.5%)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호소하고 있는 학생도 5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자신이 전화 오기 전 학교 교실을 부탄가스로 폭파시킨 중학생이, 전화 이후 학교에 수차례 상담신청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들

의 정신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오산시)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매년 초 1·4/중1/고 1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한 결과,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 학생이 최근 3년간 25만여명에 이르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4여 만명은 위험성이 높아 학교 내 지속관리와 전문기관 의뢰 등의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관리군’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과 올해 중고생 2만여 명이 성적압박, 가정불화 등으로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자살한 학생수는 ▲ 2008년 137명 ▲ 2009년 202명 ▲ 2010년 146명 ▲ 2011년 150명 ▲ 2012년 139명 ▲ 2013년 123명 ▲ 2014년 118명 ▲ 2015년 8월 기준 63명 등으로 매년 100여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각별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은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Wae센터1),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단위 학교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지역사회 전문지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계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관심군 학생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10대들의 잔혹하고 우발적인 범죄가 계속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생 정신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민석 의원은 “입시경쟁교육 때문에 학생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수준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박 대통령 지지율 54%,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치

<한국갤럽> 조사결과... '대북/안보정책' · '외교/국제관계' 이유로 긍정적 평가

한국갤럽이 9월 첫째 주(1~3일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4%는 긍정 평가했고 38%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론도 아닌 3%, 모름 응답자 5%.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8.25 남북 합의 후 급등해 지난 주 올해 최고치(49%)를 기록했고, 이번 주에 5%포인트 더 상승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부정률은 지난 주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주 긍정률 추가 상승은 방중 영향으로 보인다. 직무 긍정 평가자 중 36%가 '대북/안보 정책'

17%가 외교/국제 관계를 꼽았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24%/63%, 30대 25%/66%, 40대 56%/38%, 50대 71%/22%, 60세 이상 86%/8%다. 8.25 합의 후 2주간 긍정률 상승폭은 40대 32%포인트, 50대 25%포인트, 20대/30대/60세 이상에서는 15%포인트 내외였다.

40대에서 긍정률이 부정률을 앞선 것은 작년 4월 셋째 주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다. 직무 긍정률 기준으로 볼 때 40대 남성(49%)과 여성(63%), 40대 초반(47%)과 후반(63%)의 차이가 약 15%포인트로 큰 편이다.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39명)은 8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19명)은 7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9명)에서는 지난 주까지 부정적 기류가 강했으나, 이번 주 들어 긍정률(39%)과 부정률(43%)이 비슷해졌다. 무당층에서의 긍정/부정률은 8월 셋째 주 18%/68%, 넷째 주 29%/60%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54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대북/안보 정책'(36%), '외교/국제 관계'(17%)(+12%포인트),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1%),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9%)(-6%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381명)는 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소통 미흡'(19%), '경제 정책'(17%),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4%포인트), '독선/독단/자기중심적 기류가 강하다'(7%)(+4%포인트),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6%) 등을 지적했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4%, 새정치민주연합 22%, 정의당 4%, 없음/의견유보 30%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임의표본에서 무작위로 뽑아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응답률은 20%다.

김정환기자



예산군 의회, 제215회 임시회 개최

제2회 추경 및 조례안 등 심의

예산군의회(의장 김영호)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의 의사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를 동안 각 상임위는 '2015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과 예산안 등

을 심사하고 오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폐회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 만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내포=이지용기자

안희정 지사, 민선6기 첫 시·군 방문... '도정 보고'

8일 태안 시작으로 3개월 걸쳐 15개 시·군 차례로 찾아... '소통의 장' 펼칠 계획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민선6기 첫 시·군 방문에 나선다.

오는 8일 태안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15개 시·군을 차례로 찾아 소통의 장을 펼칠 계획이다.

안 지사의 이번 시·군 방문은 '도정 보고'로 방향을 설정했다.

각 시·군 기관·단체장 등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만나 시·군 관련 각종 도정 현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 안 지사의 생각이다.

방문 예정 일정은 ▲9월 8일 태안군 ▲17일 부여군 ▲21일 예산군 ▲24일 당진시 ▲10월 5

일 보령시 ▲6일 아산시 ▲20일 홍성군 ▲23일 서산시 ▲27일 천안시 ▲28일 금산군 ▲11월 2일 서천군 ▲11일 계룡시 ▲13일 논산시 ▲17일 공주시 ▲18일 청양군 등이다.

각 시·군 방문에서 안 지사는 우선 시장·군수, 도 및 시·군의 원과 환담을 가진 뒤, 지역 지도자와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대화를 통해 안 지사는 도정 보고 이외에 시·군 발전 전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한다.

시·군 방문 당일 오후 시간대에는 동창회나 계모임, 상인회, 입주자모임, 학부모회 등을 안 지사가

직접 찾아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도지사 와유(&YOU)'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지사 와유는 각 모임으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으로, 신청은 충남도청 또는 안희정 지사 비서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쪽지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현장 방문으로 대처됨에 따라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시·군 방문은 지역 주민과 도지사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도정 및 시·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시·군 발전 전략에 대한 지원 방향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포=이지용기자

이상민 의원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최근 3년 30%증가"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회·사법정책연구회)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이 최근 3년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58명, 2013년 1,119명, 2014년 1,252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에 대한 기소율은 2012년 54.3%, 2013년 54.9%, 2014년 46.3%로 최근 3년 사이 8%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13세 미만의 자결결정권이 없는 유년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한다"면서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신적·신체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최근 5년간 최대주주 정보 부실기재 금감원 조치건수 "0"

박병석 의원, 호텔롯데 등 4곳 최대주주 대표자 공개 안해도 "공시위반으로 안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사진은 "지난 5년 동안, 기업이 최대주주인 경우 최대주주인 기업 대표자와 재무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조치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박병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대주주 관련 공시기준'을 통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공개하는 법인의 주요 경력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개요는 최대주주 및 그 지분율,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최근 5년간 기준에 따른 최대주주 관련 부실기재로 조치한 사례는 없다"고 박 의원에게 답변했다.

금융원은 최근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 4곳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L제2투자회사 등에 대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정정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원에 따르면 그동안 롯데계열사와 같이 최대주주 법인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도 공시위반으로 보지도 않았고, 공시위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원 스스로가 마련한 작성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시장 투명성을 위해 공개범위를 설정해 놓고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않고 있을 수 없고, 기업들 스스로의 정정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시위반 조치종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68건의 조치 중 대기기업은 단 7건에 불과했으며, 모두 경고와 주의 등 경미한 조치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공시 대상 기업 모두를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기업일수록, 순환출자구조도 복잡한 대기기업집단에 대한 금융원의 감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대한석탄공사, 회사는 망하는데 임원들은 성과급잔치

박원주 의원 "지력 해결 못하면 합병이나 청산해야"



대한석탄공사가 해마다 1000억원에 가까운 적자와 이재에 희생조차 여러 워킹가운데 임원들은 역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원주 의원(천안을)이 '대한석탄공사 15년 경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채가 1조5604억원에 달하는 등 빛바림에 허덕이는 가운데 임원들에게 역대 성과급이 지급됐다.

경영현황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200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15년 동안 1조2698억원의 당기순손실

을 기록하면서 연평균 501억원의 이자 돈을 물어냈다.

석탄공사의 '밑 빠진 독'은 정부의 보조금지원으로 연명했는데 2007년 610억, 2008년 536억,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530억 등 지난 15년 동안 해마다 479억원씩을 받아 탕진했다.

이처럼 10년 넘도록 국민의 혈세로 보전하던 석탄공사는 최근 3년간 사장, 감사, 상임이사(2명) 등 4명의 임원들에게 성과급 2억 1841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회사는 망해가는 상황에서 임원인 사장은 6191만원, 감사는 6994만원, 상임이사 2명은 각 4328만원 등의 성과급을 챙겼다.

사장의 급여는 지난해보다 뛰었

다. 지난해 성과급 1476만원이 지급된데 이어 올해는 연봉이 9857만원에서 1억631만원으로 오르고 상여금은 4722만원으로 올랐다.

감사도 질세라 연봉이 7889만원에서 올해는 8553만원으로 올랐으며 상임이사 2명은 연봉이 8578만원에서 올해 9242만원으로 오르고 상여금도 1180만원에서 3148만원으로 인상됐다.

일반직의 급여는 일부 고위직이 약간 낮아지는 대신 이를 보전하고도 남을 상여금이 지급됐다.

박원주 의원은 "석탄공사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대책없이 버티며 임원들은 성과급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며 "석탄공사가 자력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 해산 또는 합병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정환기자

정용기 의원 "연인 간 살인사건 해마다 늘어, 초동대응 힘써야"

2012년 99건 → 2013년 106건 → 2014년 108건으로 해마다 증가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연인관계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313건이었으며, 금년에도 7월까지 64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2012년 984건, 2013년 914건, 2014년 906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반면, 연인 간 살인사건은 2012

년 99건에서 2013년 106건, 2014년 108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100건이상 매주 2명씩 애인에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연인 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건수는 총 9,096건으로 전국 5대 범죄 발생건수 537,745건의 1.6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살인사건은 108건으로 119%를 차지해 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연인 간 강력범죄는 2012년 9,912건에서 2013년 9,573건, 2014년 9,096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인 간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흉포화하

고 과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동계겨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아산에 암매장한 일명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6월에도 서울의 한 대학교 총학생회가가게이트 폭력 논란에 휩싸인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용기 의원은 "사랑하는 사이인 연인 간에 살인으로 마다않는 범죄로 씁쓸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다"며, "연인 간 다툼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심각해지는 만큼, 주변에서도 단순한 애정싸움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유치 성공

내년 4월 동북아 각지역 지방의회 의장 한자리에... 문화교류 교류도 마련



충남도의회는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유치에 성공, 내년 4월 충남에서 열리게 됐다

고 4일 밝혔다.

김 의장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린 제6회

포럼에 참석해 충남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동북아시아 의장들에게 공,내년 4월 충남에서 열리게 됐다

고 4일 밝혔다.

김 의장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린 제6회

포럼에 참석해 충남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동북아시아 의장들에게 공,내년 4월 충남에서 열리게 됐다

고 4일 밝혔다.

김 의장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린 제6회

내포=이지용기자

대전시의회 행자위,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최선 다해 줄 것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 원안기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는 4일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대전광역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안'을 원안기결하고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 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를 공동주관하는 대전북지국가소사이터 공동대표 김철용 교수는 "지역주의 패거리 정리의 낡은 시스템을 깨뜨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통해 반드시 국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정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요지의 설명회를 갖는다고 말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선의 위원(비례, 새누리당)은 대전국제와인페어 및 양봉축제 등 행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책에 대해 질의하고 유관기관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안전소관 사항을 심사했다.

또한 행사를 찾는 외국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항목을 체계화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등 사고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유성구 외삼동 안전마

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기식 위원장(공무2, 새정치민주연합)은 축제와 같은 행사장은 간이시설로 조성되어 특히, 관람객이 일시에 몰릴 경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행사 성격에 맞는 맞춤형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행사 기간 중에도 상시 점검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다 쓰고 없다' 입학전형료 반환율 4.9%

교육부, 전체 대학의 1/3(58교) 반환액 한 푼도 없어... "학부모 부단 경감취지 무색"

교육부는 2013년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도입해 입학전형료 인하와 그에 따른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2015학년도 입시전형료 반환 결과 입학전형료 1,559억원 중 77억원(4.9%)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료 수입을 대부분 써버려 반환할 잔액이 남지 않기 때문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입학전형료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입학전형료 반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3년 교육부는 입학전형료 인하와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2014학년도는 정시만, 2015학년도부터는 수시·정시 모두 입학전형료 반환이 가능하게 됐다. 2015학년도 입시전형을 통해 200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이 벌어들인 수입은 1,559억원이며, 국공립대학은 198억원, 사립대학은 1,361억원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에 따라 반환한 금액은 총 77억원(4.9%)에 불과하며, 사립대는 이보다 적어 1,361억원 중 62억원(4.6%)을 반환했

으며, 국립대는 그나마 196억원 중 15억원(7.4%)을 반환했다. 교육부는 입학전형료 반환 제도를 도입해 입학전형료 삭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반환액 분포 현황을 보더라도, 전체 200개 대학 가장 많은 58개 대학(29.0%)이 반환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대학을 포함해 절반 이상의 대학이 1천만원 미만으로 반환한 대학이었다. 입학전형료 반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반환액 77억원 중 사립별 반환액이 66억원(85.6%)이며, 이 중 단계별 전형에서 탈락

한 응시생에게 반환한 금액이 63억 6,980만원(81.5%)으로 가장 컸다. 사립별 반환액은 당연히 반환했어야 할 금액이지만, 법개정 전까지는 대학들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득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응시생들에게 돌려주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유기홍 의원은 "입학전형료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바에야 써버려 자는 대학의 행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장사를 하는 대학을 방치하지 말고 입학전형료 표준화 도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복 기자



주거지 진·출입로 도로개선 시급

오성그린빌라트 주민들, 생명 건 '꼭예운전' 주장

예당관광로(예당저수지를 잇는) 양방향 통행 불가

예산군 주교4리 300여명의 오성그린빌라트 주민들이 예산군의 불통행정으로 인해 생명과 재산에 대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성그린빌라트 예당관광로 748-7(예산읍 주교4리 333-1) 주민들은 선형개량이 안된 구불구불한 예당관광로(예당저수지를 잇는)와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주거지 진·출입(사진)협소로 매번 생명을 건국에운전을 하고 있다는 점. 문제는 협소한 도로로 인해 주거지에서 협소한 방면으로 우회전시 모든 차량들이 자중차 앞범퍼와 앞바퀴까지 중앙선을 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지역은 예산군민의 첫

줄인 예당저수지, 예당관광단지, 대홍습로시터, 황새공원 등 3개의 읍.면을 연계하는 전국각지의 여행객이 찾는 예산군 관문이며 통행량 또한 적지 않은 도로다. 그러나 예산군이 수십 년째 행정 불통을 자초하며 예산군의 도시경관에도 먹칠을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A씨(남·66)는 아무리 예산군 행정이 써어 문드러졌다지만 해도 해도 도로 넘어 이제는 막가자는 것인지 민원 제기가 없으면 아예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콜방에만 가 있는 예산군 공무원들을 보면 예산군 미래가 의심스럽다며 혀를 찀다. 그러면서 오성빌라가 20여년전에 세워졌는데 누구하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공무원이 없다며 이는

주민들의 생명과 연계된 시급을 다루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주민 B씨(남·58)는 이곳은 예산군 행정의 불모지가 맞다. 세상에 이런 곳도 없네? 예당저수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면 도로가 아니라 동네 오솔길보다도 못 하네! 왜 이리 길이 구불대고 좁냐? 우리 집 찾는 손님들이 하나 같이 하는 소리라며 예산군 불통 행정을 꼬집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1026억원을 투입 2019년까지 예당저수지 물놀이화장공사와 병행 수려한 경관과 친수환경을 제공 농촌지역의 에메니티(오락, 편의, 쾌적함)증진에 물론 지역민에게는 휴식처, 나아가 관광자원화를 통한 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있어 예산군 행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내포=이지용기자

JTBC-리얼미터 8월 단체장 평가

안희정 충남지사 3개월 연속 1위

JTBC-리얼미터 8월 월간 정례 조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긍정평가 '잘한다'는 67.1%로 7월 대비 1.3%p 하락했고, 김관용 지사는 66.3%로 7월 대비 1.7%p 상승했으나 2위에 머물렀다. 이낙연 지사는 60.8%의 긍정평가로 2.4%p 상승하며 새로 톱3에 진입했다. 한편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시도지사 최하위 3인은 서병수 부산시장(43.5%), 권선택 대전시장(40.5%), 홍준표 경남지사(38.6%)로 조사됐다. 시도지사 중 차기 대선주자를 살펴보면, 전체 1위에 오른 안희정 충남지사(67.1%)가 대선주자 시도지사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51.5%의 긍정평가로 전체 89에 오른 남경필 경기지사, 전체 12위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46.9%)가 3위, 전체 17위 홍준표 경남지사(38.6%)가 마지막 4위로 조사됐

다. 홍준표 경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는 7월 대비 각각 3.5%p, 0.3%p 상승한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는 각각 5.2%p, 1.3%p 하락했다. 이번 8월 조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평균 직무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51.9%를 기록해 7월(51.4%) 대비 0.5%p 올랐고, 부정평가는 29.1%로 7월(30.4%) 대비 1.3%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부문에서는 전남 장만재 교육감이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장만재 교육감은 56.9%의 '잘한다'는 긍정평가로 전월 대비 1.3%p 하락했으나 1위를 유지했고, 김승환 교육감은 50.8%의 긍정평가로 한계만 오른 2위를 차지했다. 정후국 교육감은 49.7%의 긍정평가로 3.5%p 하락해 2위에서 한계만 내린 3위를 기록했다. 한편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교육

김정환 기자

감 최하위 3인은 15위 서울 조희연 교육감(35.6%), 16위 울산 김복만 교육감(32.3%), 17위 인천 이철연 교육감(31.0%)로 조사됐다. 시도 교육감을 정책지향성별로 비교하면, 진보교육감의 평균 직무수행 지지도는 42.0%, 보수 교육감은 38.1%로 진보교육감이 3.9%p 더 높았다. 7월 대비 진보교육감의 평균 지지도는 1.8%p 하락했고, 보수교육감 역시 1.4%p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JTBC-리얼미터 8월 월간 정례 조사는 2015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8,5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IVR, interactive voice response) 방식으로 유선전화 임의결기(RDD, random dgt dialing) 방법으로 조사했고, 통계분석은 '2개월 이동(two-month rolling)' 시계열 자료 분석 기법에 따라 17,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통계보정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8%p, 응답률은 5.9%이다. 내포=이지용기자

정부세종청사 주변 주상복합용지 개발

1-5생활권 3개 필지...올해 말 2400세대 공급추진

정부세종청사 주변 활성화와 다양한 업무·편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1-5생활권(세종시 어진동에 주상복합용지가 공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창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현태)는 1-5생활권 주상복합용지(3필지, H5·H6·H9)에 대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엔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는 약 6만 6,000㎡(2,404세대) 규모로 오는 11월까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올해 말 공급될 예정이다.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시

주요 착안사항은 ▲중앙행동대의 입지 특성을 고려한 상징적인 건물의 운곽선(스카이라인)과 디자인 ▲주변 주거단지·학교·방축천 특화 상가 등 근린시설과의 조화 ▲방축천·제천수변공간의 활용 ▲기존 대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계획과 저영향 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의 적극적 적용 등이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통한 도시 가치 제고를 위해 도시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주상복합용지도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설계지침과 용도계획 등을 담은 종합계획(Master Plan)을 수립·공급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

립을 지휘한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는 신현준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로 인천 송도 대우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주상복합과 삼천리 사옥, 명동성당 100주년 기념 현상설계 등 다수의 현상설계 당선 경험과 미국 건축사 자격 및 친환경 인증 자격증(LEED Ap :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ssociated person)을 보유하고 있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행복도시 1-5생활권(세종시 어진동) 주상복합용지 개발로 정부세종청사 주변이 점차적으로 민간과 공공이 어우러진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주변의 자연환경이나 건축물과 조화되는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 지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소재부품개발에 5년간 352억원 날려

산업부, 자체 환수율은 25%...외부기관에만 기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부정비리가 연례행사가 된 가운데 적법업체에서 걷어 들인 환수금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의원(원안)이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실적보고'를 분석한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낭비된 협세가 최근 5년여 동안 48건 35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9건 99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18억원(6건), 2012년 50억원(12건), 2013년 111억원(14건), 2014년 63억원(4건), 올

해도 상반기에만 3건 11억원의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사업비 부정비 연례적으로 일어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연구비 부정은 2013년을 기점으로 지난해 크게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 3건이 발생해 전담기관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지난해는 건당 부정사용액이 16억 원에 달해 사업비 부정의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부정 사업비 환수금은 지난 5년여 발생액의 44%, 155억 원에 불과했다. 전담기관인 산업부의 환수율은 29%(환수율 249%)이 고작이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

과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실제 지난 2010년 수사기관은 환수액 발생 60억원을 모두 수납시킨 반면 산업부는 43억원의 8.3%인 3억원에 그쳤다. 2011년은 2500만원이 고작이다(6.2%). 2012년은 13억원(41.0%), 2013년 9억원(40.6%), 2014년 4억원(28.5%)에 불과했다. 박완주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연구비 부정사용이 일어나는데 결국 국민 협세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R&D사업의 수행과제와 규모가 커 부정 사업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안전처, 의용소방대 예산 사무실 화분같이"

방식·생수 구입에도 사용...사업 첫 해부터 엉터리예산 집행

국민안전처가 의용소방대 활성화·화비 명목의 예산을 사무실 화분같이, 국장 집무실 방식 구입비 등 부서 운영 경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 하운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해로, 청소년들에게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백제역사유적지를 통해 청소년들이 친밀한 백제문화의 중심지인 충남도에 대한 자긍심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이지용기자

내부결재 구입계획서를 보면, 여름용 방식의 경우 중앙소방본부장실, 소방조정관실 및 소방정책국장실 등 국장급 공무원들의 집무실에 비치할 용도로 방식 57개와 등받이 커버 5개를 구매하였다. 화분 구입과 분갈이의 경우 방호로부터 제출받은 '의용소방대 활성화·화비 세목별 지출내역'을 보면, 지난 6월 의용소방대 활성화비에서 '여름용 방식'을 구매하는데 165만 9천 원, 4월에는 사무실 화분 구입과 분갈이 비용으로 45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화된 의용소방대를 육성하겠다는 예산을 부서 운영 경비로 임의 전용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전국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2억 9900만원을 책정하였지만, 사업 첫 해부터 엉터리 예산 집행을 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전용한 예산액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작은 예산이라고 함부로 전용해서 쓰고 다른 예산으로 메우면 된다는 식의 예산 집행 관행이 적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하는 무보수 민간봉사조직이다. 전국적으로 3,628개대 조직에 94,617명에 달하는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4년에만 1일 평균 69회의 소방 활동을 벌였다. 김태선 기자

"평화통일 꼭 이뤄서 진정한 광복 완성"

박대통령,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재개관식 참석 "지금심 고취...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 되길"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평화 통일을 꼭 이뤄서 진정한 광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오늘 새롭게

는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국내의 8개의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을 이뤄 우리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라며 "오늘 재개관식은 우리 독립전쟁 유적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한중 양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 측과 협조해 중국 내에 독립전쟁 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 후 양승 상하이 시장,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 김우천 원로 애국지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함께 테이프 커팅 행사를 했다. 이어 청사 1·2층을 관람 한 뒤 3층으로 이동해 전시실을 참관했다. 박 대통령은 청사에 전시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 등 임시정부 각

료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이라고 말했다. 또 한인 2세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했던 인성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어려운 시절에도 교육을 중시해 가지고..."라고 밝혔다. 이어 임시정부 국무위원들의 사진 설명을 듣고 "다행히 사진이 남아있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방명록에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중국 정부와의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노후화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재정비해 개관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이연영 기자

● 동 정 ●●●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은 7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 및 안전대전 결의대회 참석.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



한현택 동구청장은 7일 오후 2시 30분, 대전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 참석.

칼국수축제 추진위원 위촉식



박용갑 동구청장은 7일 오후 4시 30분 구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칼국수축제 추진위원 위촉식' 참석.

용문행복학습센터 개강식



장동세 서구청장은 7일 오전 10시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용문 행복학습센터 개강식' 참석.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7일 오후 2시 30분 대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5년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 참석.

市,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적극지원

민·관 공동 '전문가 TF팀' 구성

대전시는 증가하는 노인 일자리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2016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전문가 TF팀'은 전문성 및 대표성 있는 민·관의 공동 참여로 실효성 있는 기능 수행하기 위해서 노인관련 대학교수, 현장 전문가, 유관 기관·단체, 시의원,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중부지역본부장 등 8명의 참여 위원들이 '어린이시설 안전 모니터링' 및 '노인 돌봄 시각지대 해소'를 위한 'The 좋은 대전시 프로젝트', '실버도우미 은행(고령자생활지원서비스)' 등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전문가 TF팀'은 10월 6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2016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 프로그램 개발, 취·창업형 공모사업 선정과 향후 중·단기적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및 지원 시스템개발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노인 일자리의 양과 질 확보를 위한 중·단기 계획수립 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 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위탁교육과정(전기기능사과정)수료식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명현)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 3일 다산전기학원(원장 최중인, 대전 중구)에서 제대군인 전문위탁교육 수료생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전기기능사과정'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6월11일부터 3일까지 12주에 걸쳐 진행됐다.

사랑의 나눔우산 5년째 이어져

태평2동 버드내아파트단지 경로당 200개 기증



대전 중구 태평2동 버드내아파트1단지 경로당(회장 안수부)은 4일 동주민센터에서 관내 4개 기관에 고장난 우산을 수리해 전달하는 '나눔우산'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는 신평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 서대전종합버드내지점, 태평2동 주민센터 등 4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각각 50개씩 200개가 전달됐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나눔우산은 버드내아파트1단지 경로당 회원이기도 한 정동승(남, 79세)씨가 고장난 우산을 수선해 기증하면서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복지시설, 양로원 등 주민센터 등에 2000여 개의 우산을 기증해 왔다.

김태선기자

서구, 학교 주변 안전분야 일제점검·단속

4개분야 안전위협요인 사전 제거



대전 서구청장 장종태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학교 주변 안전분야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대전시약청, 대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김태선기자

대덕구 숲길 재정비 완료

정자·방향안내판·데크계단 등 등산객 불편사항개선

대덕구구청장 박수범은 대전 8경의 하나인 계족산 숲길(인도37~계족산성 구간) 및 대전둘레산길 6구간(용화사~봉산동(구죽)버스기점), 도시생활권 주변 숲길(비래·송촌·덕암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숲길로 재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계족산과 대전둘레산길 6구간은 숲속에서 대청호 및 금강·갑천을 보며 걸을 수 있는 등산구간으로 하루 이용객만 1천명 이상이며 계족산 황토길은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잡아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김태선기자



유성지역 복지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1회 복지인의 한마당 대축제...소통·교류 화합의장 마련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오정수)는 지난 4일 성서제철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유성구 복지인의 한마당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을 비롯해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공무원, 복지학 전공 대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먼저 1부에서는 식전행사에 이어 우수 시설 및 개인에 대한 시상식, 희망사화와 건의사항을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모든 참여자들

이 청담과 백담으로 나누어 파워게임을, 홀리후프 서버이별, 폐지물 이, 코믹 계주 등 명랑운동회와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이런 뜻깊고 따뜻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복지인들께 감사한다"며 "이자리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市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

규제 15건 완화, 시민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대전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규제사항 일부부를 완화 개정했다. 시는 건축물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공하는 용적률 상향 적용 기준을 현행 건축면적의 80% 식재에서 옥상 바닥면적의 50% 식재로 대폭 완화했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의 자유롭고 창의적 설계를 위하여 1만 제곱미터 이상 주거단지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계획 시 주민커뮤니티 공간 계획, 공동주택 건립에 관한 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대체시설 확보기준, 도로, 주차장, 지붕의 다양한 형태 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개별법령과 중복규제 하였던 조문을 삭제했다. 대전시 신상호 도시주택국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집행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했다"며 이번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관련 규제에 의해 불편을 겪던 시민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제19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성황리 폐막

국내 최고 합창경연대회 자리 매김

대전시는 지난 3일 우송예술회관에서 개최된 19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 시상식과 지난 4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독일 프라이부르크 합창단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대성황의 막을 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백춘희 정부부시장, 박진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도복 추진위원장, 합창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내 유일의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19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는 ▲강동구립여성합창단(서울이 영예의 大賞대통령상)

을 받았으며,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송파구립합창단(서울) ▲금상(대전광역시시장) 장원시 일대전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독일 프라이부르크 합창단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대성황의 막을 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백춘희 정부부시장, 박진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도복 추진위원장, 합창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내 유일의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19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는 ▲강동구립여성합창단(서울이 영예의 大賞대통령상)

회를 거듭 할수록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하였고, 이제는 대통령상이 수여되는 대회에 걸맞게 국내 최고의 합창경연대회로 자리 매김했다고 말했다.

또한, "합창으로 지역이 하나가 되고 소통과 화합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대회 준비에 수고하신 강도복 합창축제추진위원장과 박진인 대전문화재단대표를 비롯한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막을 내린 '제19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는 지난 2일부터 시작하여 3일까지 17개 팀이 예선심사를 거쳐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영호 기자



유성온천1동마을축제 성황

유성구 온천1동 제8회 온천가족 한마음 축제가 지난 5일 온천로 일원 유성명물문화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에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을 비롯해 축제추진위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0여 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공연을 즐겼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농산물직거래장터와 체험·전시관, 각종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푸짐한 먹거리 장터도 마련됐다. 김기동 축제 추진위원장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주셔서 상황리에 잘 끝났다"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전통을 이어가는 문화가 있는 온천1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전국 귀농·귀촌인들의 새로운 메카로 '인기'

태안군, 귀농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 나서 지난해 225가구 전입

태안군이 전국 귀농·귀촌인들의 '제2의 고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인구는 총 225가구 413명으로, 지난 2010년 57가구에서 2011년 33가구, 2012년 467가구, 2013년 105가구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총 귀농 가구의 60%가 40~50대일 정도로 젊은 귀농층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일로를 걷던 지역 농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으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귀농 비율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낀 젊은 층의 증가와 농촌 환경 개선 등 전반적인 귀농 인식 및 환경 변화와 더불어,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의 접근성과 천혜의 자연조건, 그리고 각종 교육과 농기계 대여은행 운



영, 귀농·귀촌 코레일 기차 현장 투어 등 군의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책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20여 년간 다니던 직장을 떠나 올해 태안군으로 귀농한 40대 김모 씨는 "귀농을 마음먹고 있던 중 태안에 놀러왔다가 이곳의 자연환경과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인상에 반해 직장을 접고 이곳으로 귀농하게 됐다"며 "귀농 전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귀농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며 몇 년간 귀농을 체계적으로 준비했고 앞으로 태안군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근흥면 두아리 마을회관에서는 귀농·귀촌인 집들이 화합 행사'가 열려 지역 귀농·귀촌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이 마련됐으며, 군은 '귀농인 집들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집들이비용 50만원을 지원하고 한상기 군수가 직접 행사에 참석해 귀농·귀촌인들에게 친선적인 환영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상기 군수는 "태안군은 귀농·귀촌인들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교감과 화합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태안군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군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우수상 수상

'후후' 우수한 사용자 친화성 인정

KT CS대표 유태열, www.kcscokit가 스펙터단원 '후후'가 지난 4월,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주관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 사용자친화성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는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가 올해 처음 신설한 상으로, 사용자 친화성, 개인정보보호, 정보제공, 가치 창출 등 10개 평가지표를 통해 사람친화적인 디지털 기술을 평가해 우수 기술 및 서비스를 선정한다.

후후는 1500만 이용자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2200만건의 스펙정보와 1140B를 통해 스펙전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신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자 친화성을 인정받았다. 매일 후후에서 식별하는 통화 및 문자건수는 매일 약 19억건이며, 이중 5억건을 스펙전화로 걸러내고 있다.

또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직관적인 UI/사용자 환경, 간편한 구성, 눈에 편안한 색감 등 사용자가 쉽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객과 소통하고 개선한 노력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후후는 출시 2년여 만에 누적 다운로드 건수 1500만 건을 돌파했으며, 권슈머 저널 '이비즈'와 '유비하인드' 조사결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 7위에 오르기도 했다.

차원형 후후사업부장은 "후후가 사람친화적인 디지털 기술로 깨끗한 통신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후후는 구글플레이스토어, 통신사 마켓, 네이버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송병배기자

(042)538-3030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 'LM협의회' 열려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본부장 이강신)는 지난 4월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관내 영업점 자산관리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하반기 LM협의회를 개최했다. LM(Lounge Manager)은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자산관리사(FP), AFPK 등

자격증을 보유한 자산관리 전문가로 각 영업점에서 PB(우수) 고객을 관리하고 펀드, 방카 등 종합 자산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전략상품 선정 및 실무교육 등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2016년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계좌이동제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강신 본부장은 "1%대 초저금리 시대에 고객의 기대 수익률에 맞는 금융투자상품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투자수익은 물론 손실 위험과 고객의 투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담능력을 갖춰 고객의 신뢰를 얻는 충남농협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병배기자

베트남 닌빈성 실무대표단 아산시 방문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당 중 풍(Dinh ChungPhung) 부성장이 이끄는 베트남 닌빈성의 교류협력 실무대표단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아산시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대표단 방문은 아산시와 베트남 닌빈성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방문 성격으로 경제, 통상, 관광,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교류가능 사업을 발굴·협의를 위한

경제통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닌빈성은 면적이 약 1,400km로 아산시의 약 2.5배,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서 90km 거리에 있으며, 년 4만대 자동차 조립생산이 가능한 현대자동차 탄 공장과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관광명소 장안이 있는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아산=리량주기자



사회적경제인 육성 아카데미 교육 성료

아산시,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 총 5회 걸쳐 진행

아산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실시한 '2015년 아산시 사회적경제인 육성 아카데미 교육'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사회적경제 참여와 다양한 법안 고객체들의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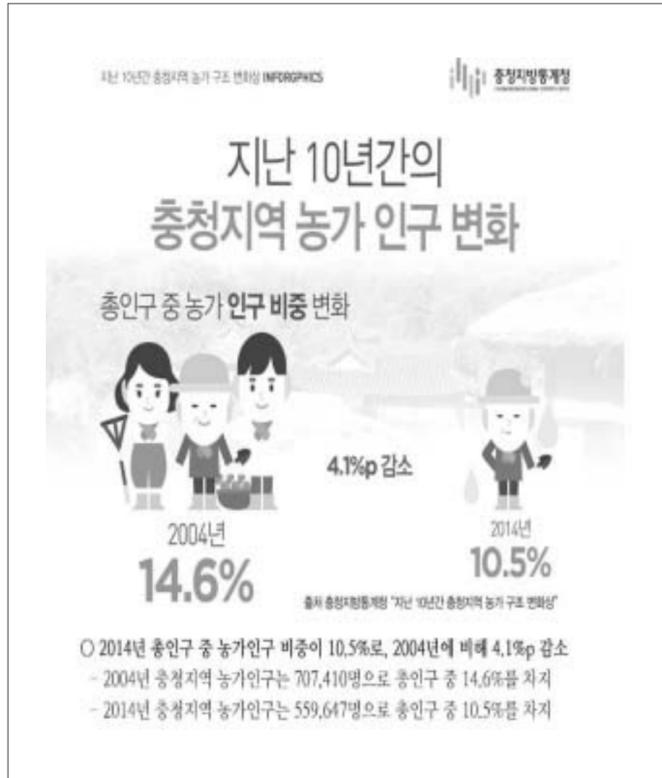
교육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본부장의 사회적경제 가치경영을 비롯해 사업아이템 발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 선진 사회적기업 벤치마킹으로 구성 운영했으며 총 55명이 수강해 28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됐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바쁜 시간을 내어 아산시가 주최한 사회적경제 육성 아카데미 교육에 참가한 수강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산의 사회적경제가 건강하게 육성·성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회적경제 체계에 구성요소로 10월경 인사사회계·인사노무 등 심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사회적 경제 기업 운영,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사회적경제과에 문의한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전투데이 후원회 일동

관세청 개청 45돌 맞아, 역대 청장 한자리

관세행정의 미래와 발전방향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 가져



관세청은 개청 45주년을 기념하여 3일 전·현직 관세청장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관세행정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전·현직 관세청장간의 만남의 장인 이날 간담회에는 장영철 전 노동부 장관, 홍재형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역대 관세청장 16명이 참석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모임에서 선배 관세청장들로부터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들었고, 역대 관세청장들은 대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관세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전하고,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김태선기자

당진화력본부, 안전문화 정착 위한 끊임없는 노력

‘무재해 9배수 목표달성 인증’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배상규)는 지난 7월2일 무재해 9배수 목표를 달성하고 적격심사 후 2015년 9월22(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패를 받았으며,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김성관 동서노조 당진화력 지부장)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는 2006년 9월 16일부터 2015년 7월 22일까지 10년간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재해를 지속하여 9배수 목표인 13,248,000시간을 달성한 것으로서, 당진화력본부 관계자는 "당진화력본부 전 직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위해개소 발굴과 작업 환경 개선활동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2016년 무재해 10배수 목표달성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배상규)는 지난 7월2일 무재해 9배수 목표를 달성하고 적격심사 후 2015년 9월22(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패를 받았으며,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김성관 동서노조 당진화력 지부장)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는 2006년 9월 16일부터 2015년 7월 22일까지 10년간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재해를 지속하여 9배수 목표인 13,248,000시간을 달성한 것으로서, 당진화력본부 관계자는 "당진화력본부 전 직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위해개소 발굴과 작업 환경 개선활동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2016년 무재해 10배수 목표달성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의 미소’로 세계인을 공주로

웃음과 친절이 넘치는 예의바른 세계유산 도시 공주민들기 나서

오는 8일 시민·단체 1천여명 참여... 범시민 친절운동 캠페인 전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공주시에서 품격 높은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도약을 위한 범시민 화합의 장인 오는 8일 진행된다.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오는 8일 시민과 사회단체,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소가 머무는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를 위해 공주시청 앞 광장부터 공산성 주차장 일원까지 범시민 친절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포함한 송산리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예년보다 3배 가까운 관광객이 공주를 찾고 있어 이에 걸맞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웃음과 친절이 넘치는 예의바른 세계유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제61회 백제문화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이내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공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주의 미소로 세계유산 도시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에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토대로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택시 있는 안내와 정감이 넘치는 친절한 손님맞이 ▲내 집 앞 화분 기르기 ▲전 시민 백제복 착용하기 ▲내 집 앞 및 상가 백제 등달기 등이 범 시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정성범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품은 공주시에서 품격 높은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세계적인 역사도시로 도약을 위한 범시민 화합의 장인 오는 8일 진행된다.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오는 8일 시민과 사회단체,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소가 머무는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를 위해 공주시청 앞 광장부터 공산성 주차장 일원까지 범시민 친절운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포함한 송산리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예년보다 3배 가까운 관광객이 공주를 찾고 있어 이에 걸맞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웃음과 친절이 넘치는 예의바른 세계유산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제61회 백제문화제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이내 1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공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주의 미소로 세계유산 도시에 걸맞은 서비스 제공에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캠페인을 토대로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택시 있는 안내와 정감이 넘치는 친절한 손님맞이 ▲내 집 앞 화분 기르기 ▲전 시민 백제복 착용하기 ▲내 집 앞 및 상가 백제 등달기 등이 범 시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농협, 7일부터 추석까지 '식품안전 특별상황실' 운영

추석명절 식품안전 걱정 마세요!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송현)는 추석 명절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 7일부터 25일까지 판매 37개 하나로 마트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원산지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반 특별점검은 ▲명절 제수용품 및 성수품목의 수입품 혼입 여부,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또는 위변조 ▲식품보존·보관 상태 ▲매장관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송현)는 추석 명절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 7일부터 25일까지 판매 37개 하나로 마트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원산지 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반 특별점검은 ▲명절 제수용품 및 성수품목의 수입품 혼입 여부,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또는 위변조 ▲식품보존·보관 상태 ▲매장관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4년제 사립대학 예산 부풀리기 관행 언제까지..”

정진후 의원, 교육부 나서서 재정분석등 통해 행정지도등 조치 취해야

세종시, 품질경진대회

금상2개 수상

2014년 154개 4년제 사립대학들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대비 수입은 7,117억원 늘었고, 이월금은 예산보다 5,886억원을 더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의 2014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입총액은 18조 2,145억원이었으나, 결산 결과 수입총액은 18조 9,262억원으로 7,117억원 늘었다. 이에 반해 이월금의 경우 분예산 편성 당시에는 1,646억원이 이월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월한 금액은 7,532억

원으로 분예산 대비 5,886억원이 늘었다.

수입자금별 분예산 대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 예산보다 411억원이 늘어났고, 국가장학금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은 당초 계획보다 5,284억원이 늘었다.

특히 2013년에 미사용하고 이월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예산 대비 결산과의 차이가 커서 2,730억원이 늘었다. 이에 반해 사학재단의 전입금이 주요 수입원인 전입금수입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824억원이 적게 들어왔고, 기부금 수입도 예산보다 883억원이 적었다.

사립대학들은 이와 관련하여 당

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월금이 피치 못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과 같이 사업을 계획했다 이월되는 경우와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많을 경우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이월금이 전체 이월금의 절반에 가까운 48.8%에 이르러, 이월의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 이월금이 38.7%에 달하는 이월금 현황을 볼 때 이런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대학별로는 수원대가 당초 분예산 편성시 이월금 459억원보다 596억원이 많은 1,056억원을 이월했고, 울산대 209억원, 성균관대

198억원을 더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는 수원대의 경우 2014년 수입중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이 1,205억원이었다는 점에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이월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대학 구조개혁과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과도한 예산 이월은 이러한 사립대학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이월금이 과하게 남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재정분석등을 통해 행정지도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기업들이 전국 품질관리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2개 수상했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충남 예산 덕산리조트에서 열린 제41회 전국품질분류조정경진대회에서 세종시 관내 기업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세종시 소재 한국에프엠의 ‘출발’ 분임조와 한국전력세종지사 ‘트리플 제로’ 분임조가 각각 현장개선 분야에서 금상을, 한전 ‘지킴이’ 분임조는 안전품질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한국콜마 ‘우보천리’, 남양유업 세종공장 ‘아라비카’ 등 5개 분임조도 각각 동상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충청남도가 함께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294개 팀 3911명의 분임원이 열띤 경쟁을 벌였으며, 세종시는 6개 기업 8개 분임조가 참가했다.

입상한 분임조는 오는 11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포상을 받게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충남 도량살리기 워크숍 아산시 우수사례 발표



아산시가 지난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주민주도형 살리기 운동」이 살개전 생태계복원과 주민공동체 회복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성과를 인정받는 등 명실공히 살개전 살리기 최우수 지자체임을 드러냈다.

아산시는 지난 2일 예산덕산리 파크에서 열린 ‘충청남도 도량살리기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배방읍 원공솔 마을의 복원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시·군 공무원, 도량지킴이(이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공수1리 김동빈 이장의 발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후에도 방치됐던 원공솔마을 살개전에 대해 여울·소 조성과 퇴적토사제거, 수생식물 식재, 화단 및 꽃길조성, 주민의식 개선교육 등의 개선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해진 살개천과 그것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아산시의 복원 사례가 발표됐다.

발표에 나선 김 이장은 “우리 마

음이 살개천사업을 성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개천과 마을을 가꾼점과 함께 환경단체와 행정기관의 협조와 관심이 있어 성공할 수 있었다. 복원된 살개천과 공동우물들은 마을의 자랑거리가 됐으며 과거 물장구 치고 놀던 추억의 공간을 우리 아이도 누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둘째날 일정으로는 아산시 배방읍 공수1리 원공솔마을과 문포면 신항2리 문작골마을 살개천을 찾아 성공적인 살개전 살리기 현장을 견학했다. 견학에 참여한 타시·군 도량지킴이들은 맑게 흐르는 물과 돌에 숨어 있는 가재와 버들치를 틔어 보며 깨끗하게 복원된 살개천을 실감했다.

특히 김동빈 이장의 설명을 들으며 살개천의 살리기의 성공을 위해 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각 마을로 돌아가 성공적인 살개전 살리기를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도 '201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시·군 위원·관계 공무원 참여 지역대회

충남도는 3일부터 1박2일간 예산 리솜스파에서 도내 15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역대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변화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운영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일정은 개회와 이어 보건복지부 중앙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김충환 사회보장조정과장과 한신대 홍선미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법령개정 사항,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강의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주제별 분임토의가 진행됐다.

이어 4일에는 광주시 공산구 노인복지관장이자 여민동락 대표인 강위원의 지역공동체 강화방안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도는 이번 지역대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향후 방향성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협의체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과 자원 간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내포=이지용기자

대전대학교, 한-아세안 국제 행사 ‘성료’

폭 넓은 국제교류 통해...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 유치할 계획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는 한국의교부의 지원을 받아 2015-2016도 한-아세안 학생교류 프로그램(International College Student Exchange Program Between Korea and ASEAN Nations)에 참가한 아세안대학교 학생(AUN : ASEAN University Network) 20명에 대한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4일 30주년기념관 5층 하나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대학교 임용철 총장의 환영사, AUN 사무총장인 Naniara태국 출라롱콘 대학교 교수박사의 인사, 학생 자기소개, AUN 소개, 한-아세안 학생교류 프로그램 및 대전대학교 소개, Buddy Matching 등 우리나라에 처음 온 학생들에게 한국 및 대전대학교에서의 생활 안내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대전대학교에서 ICT분야, 사회과학분야의 교육프로그램과 그리고 한-아세안센터, UNAPCICT,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 공공기관 인턴십 과정을 제공받으며, 전공과목 수강은 영어로 진행되며, 한국어강의도 체계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기대효과는 미래의 ASEAN 지도자가 될 우수한 대학학생들을 교육시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경제



및 복지 발전 노력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와 호감을 제고하고, ASEAN 역내 격차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 원인 중 하나인 고등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고, 나아가 ASEAN의 균형적

이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과 ASEAN의 친선과 상호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아세안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2002년부터 외교부가 한-아세안 협력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으로 본교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4년간 연속으로 단독 사업 시행 주체로 선정되었으며, 성공적인 민간교류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대학교에서 교육받은 200여명의 아세안 학생들은 졸업 후 자국의 외교부 등에 근무하며 한-아세안의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임용철 총장은 “대전대학교는 향후 폭 넓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아세안학생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정립은 물론 대전대학교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

보령 LNG인수기지 공정현황 점검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3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에 LNG인수기지를 건설 중인 보령 LNG터미널(주)대표 서윤석) 공사현장을 방문, 가스시설의 공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보령 LNG터미널(주)은 SK와 GS사의 자가소비 및 발전소용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GS에너지와 SK E&S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현재 약 75%의 공정진행으로 내년 6월 준공 예정이다.

보령 LNG터미널(주)의 주요시설은 약 175만평의 부지에 LNG 저장탱크 3기(20만 kℓ), LPG 저장탱크 1기(45만톤)와 10만톤급 규모의 선박접안시설로 터미널의 LNG저장

량(1320만 kℓ)의 약 45% 수준이다.

또한, 보령터미널은 인접한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시간당 3만톤 규모의 온배수를 LNG 기화공정에 사용해 해수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해 해양생태환경 영향을 최소화시키므로써 중부발전과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박기동 사장은 보령 LNG터미널(주) 서윤석대표와 면담 후 이대성 건설본부장으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브리핑 받고, LNG 저장탱크와 배관시설의 공사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보령터미널은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이므로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감리로 안전한 기지 건설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배기자

목원대학교 총동문회 제22대 전제모 회장 당선

제22대 총동문회장 선거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선출

목원대학교 총동문회 제22대 회장으로 전제모(57)씨가 당선됐다. 지난 3일 제22회 정기총회와 제22대 총동문회장 선거가 오후 7시 목원대학교 신학관 A113호에서 개최 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제21대 총동문회의 사업 보고, 결산 보고, 2015~2016 예산승인 등을 의결하고, 이어 제22대 총동문회장 선거에서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전제모회장이 선출됐다.

또 제22대 총동문회의 감사로 김동근(80학번), 인태환(83학번)이 선임, 제22대 총동문회는 2015년 10월 부터 2017년 9월까지이다.



[사진설명] 전제모당선인이제22대 총동문회장에 선출되어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우리대학 동문 총장인 박노관총장, 박도봉 명예

회장, 전득배 대전시티즌사장 등 많은 목원동문들이 함께 했다.

전제모회장은 당선 소감으로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이 하나 될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겠다"며 "지난 2년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문들께 귀를 기울이고 모든 동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제모회장은 제21대 목원대학교 총동문회장 취임, (주)송림주류, (주)송원주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레슬링협회장, 대한레슬링협회 상임부회장에 중임중에 있다.

김태성기자

충남대학교, 제50회

공인회계사 7명 합격

최근 발표된 제50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충남대학교 출신, 7명이 합격했다.

응시자 2,837명 중 91명이 합격한 가운데 이번 제50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충남대 출신은 신연재(경영07) 정재현(경영02) 황인용(회계07) 한석희(경영07) 이새결(국제경영09) 임정남(경영01) 이소미(경제04) 등 총 7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충남대는 지난 1983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첫 합격자를 배출한 이후 거의 매년 합격자를 배출해 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10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세무, 회계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왔다.

이정복기자



서산소방서, 현대 파워텍 합동 소방훈련 실시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3일 오전 지역민 소재 1급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대파워텍에서 직원 및 지휘소방대 143명을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논산소방서 "화재피해주민과, 함께 일어서요" 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4일 오전, 주택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논산시 양촌면 박도씨 집을 찾아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지원물품을 전달하는 등 화재피해주민 주거환경개선 지원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아산소방서, 신정중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지난 4일, 신정중학교 1학년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인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공주소방서, 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신청사 방문 지난 4일 오전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이종화)가 공주시 용진동 공주소방서신청사 현장을 찾아 공사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양경찰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FTX 실시 지난 4일 10:30, 고추·구기자축제장에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FTX 훈련을 실시했다. 본 훈련에는 경찰관청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미아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 이에 따라 즉시 현장 근무자에게 전파, 축제장의 출입로를 통제하고 행사장 내를 전면 수색하는 방식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국군대전병원, 보훈가족에게 의료봉사 펼쳐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명현)은 지난 1일 국군대전병원과 연계해 본청 5층 대강당에서 보훈가족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 · 최근 5년간 무려 4,437억원 달해”

이종배의원, 식약처의 불법 유통관계자 고발등 유관기관간 공조 및 적극적 노력 필요 주장

지난 3월 중국 위법 소재 공장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자동차 부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자동차 부품을, 안쪽에는 미신고물품인 가짜비아그라 등 정품 시가 84억원 상당품을 적입해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정밀검사에 의해 적발되는 등 가짜의약품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1~'15) 가짜의약품 밀수 적발금액이 총 4,43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11년 1,137억 6,500만원, '12년 58억 9,700만원, '13년 2,989억 9,400만원, '14년 165억 7,900만원, '15년 6월까지 84억 7,600만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밀수된 가짜의약품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 휴대폰 문자, 성인용품 판매용 봉고 등 음성적인 거래로 유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월 27일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불법 제품으로 밝혀졌다.

주로 다른 성분이 검출되거나,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또는 미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짜의약품은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종배 의원은 "가짜의약품의 경우 효능이나 안전성, 위생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가짜의약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의 단속 강화 및 방통위의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식약처의 불법 유통관계자 고발 등 유관기관간 공조 및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환기자

대전충남병무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안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이성수)이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 하고자 할 경우 군복무기간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이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통해 지정된 입영일(연 4회)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 일반입영자보다 1주일 빨리 입영해 병역 생활규정, 역사교육 및 독립기념관 답사, 울

바른 언행 및 군대예절 교육 등 군 적응프로그램을 받게 된다.

또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육군훈련소와 협조해 '입영 환영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간담회는 입대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종합해 답변해 주고 있다. 아울러 입대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해 입대 후 긴장감으로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자유롭게 질문을 받아 답변해 주고 있으며, '국의영주권

병사 질의/응답'소책자를 제작해 영주권 유지 방법 등 궁금증을 해소해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조성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대전소비자연맹, 동구청과 함께 남은 음식 활용 요리교실

대전 동구주민 및 타지역 주민 40명 참여



대전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9월 4일(금요일), 동구청(청장 한현택)과 함께 '추석 명절 후 남은 음식 재탄생!! 남은 음식 활용 요리교실'을 동구 중동소재 왕준원 요리학원에서 실시하였다. 요리교실에는 대전 동구 주민 및 타지역 주민 40명이 참여하였다.

명절에 남은 음식을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요리교실에서는 아트&룩 원장 김수경 요리 연구가와 함께 대추와 마늘을 주재료로 하는 대추탕수를 직접 만들어 보았다.

이외에 명절에 남은 음식을 활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 실물들과 사진들을 전시하여 남은

음식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전시한 요리 산적과 식빵을 이용한 산적샌드위치, 송편과 파프리카를 이용한 송편탕수이며, 사진은 로는 불고기, 잡채, 나물, 송편, 대추, 밤, 사과·배 등을 이용한 불고기 잡채 채소 월남쌈, 사과 깍두기, 고기말이 탕수육 등 10점이 전시되었다.

대전소비자연맹 서명숙 간사는 "명절 음식은 기름진 음식이 많아 칼로리가 높고, 여러 번 먹다보면 음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자칫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다. 따라서 '남비 없는 음식문화, 나무터 실컷'을 슬로건으로 하여 실시

한, 이번 요리교실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소 및 음식문화개선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성기자

심평원 대전지원, 여성취업

박람회 참가건강상담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이동준, 이하 심평원 대전지원)은 지난 3일 대전시청에서 YWCA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한 대전지역 여성취업박람회에 참여해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송병배기자



당진소방서, 지난 3일 오전 10시 당진축협사료공장에서 실시

축사화재 예방교육 '큰 호응'

당진소방서(서장 김득근)는 지난 3일 오전 10시 당진축협사료공장 3층에서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축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급속한 성장과 시설의 대규모화되는 달리, 아직도 화재위험이 높은 샌드위치 판별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경제성을 이유로 시설투자 및 관리가 소홀한 축사가 많아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그 피해규모가 갈 수 있어 안전조치 필요성에 따라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관내 주요 축사화재사례 소개 ▲축사화재 취약요인(전기시설 등) 개선방안 제시 ▲축사시설 건축허가시 내화구조(불연재료사용 권장)▲신속한 화재조기대응을 위한 대응능력 확보 등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조업수역 이탈 위반' 중국어선 3척 나포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정식)는 3일 EEZ 내측 4마일(7km) 해상에서 한중어업협정(조업수역 이탈 위반)을 위반하여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나포된 어선은 지난 2일 A선박(61톤, 유망)은 EEZ 내측 6마일, B선박(61톤, 유망)은 EEZ 내측 5마일, C선박(63톤, 유망)은 EEZ 내측 6마일 해상에서 각각 조업 목적으로 투망 후 3일 오전 8시경 출역신고 없이 EEZ 외측에서 대기 중인 운반선에 어획물 이적을 위해 조업 수역을 약 2마일을 이탈해 나포됐다.

태안=김정환기자

9시 10분경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이던 1507함이 이를 인지하여 다시 EEZ 외측에서 내측으로 진입하는 동 중국어선 3척을 발견하여 고속 단정 2척을 이용하여 오전 10시경 나포했다.

1507함 경찰관이 현장 즉시 조사 결과 선장 손모씨(남, 38세, 장항시 거주) 등 3명은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이들은 책 당 담보금 1500만원씩이 부과되어 납부가 확인되면 검사 지휘에 의하여 현장에서 석방 조치될 예정이다.

아산소방서, 신속한 대처로 산악사고 예방 민전 기하고자

가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본격 운영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가을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토·일·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덕산산악면 강당리 소재(과연인산영인면 아산리 소재) 등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본격 운영한다.

이는 가을철 산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이용한 등산객 안전

조치 및 신속한 대처로 산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산로 구간에서 등산객들을 위해 합탈, 당초측정 등기 안전산영인면 아산리 소재) 등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본격 운영한다. ▲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각종 산악사고 예방·홍보 ▲ 사고가 닦은 등산로 유동순찰 등이다.

아산=리명주기자

“대졸이상 성인남녀 59%, 학벌 취업 영향 미친다”

<사람인> 손해 본다는 생각 ‘지방 사립 대학’(41.1%) 응답자 가장 많아

대졸이상의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은 본인의 학벌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도움보다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 대표 이정근이 대졸 이상의 성인남녀 3,373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학벌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3%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했다.

이때, 절반 이상이 60.8%가 자신은 ‘손해 보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벌에 따라 살펴보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지방 사립 대학’(41.1%) 응답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38.4%), ‘지방 거점 국립 대학’

(33.4%), ‘해의 대학’(33.3%), ‘서울 소재 대학’(31%), ‘SKY 등 명문대학’(21.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본인의 학벌로 취업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서류전형에서 계속 탈락해서’(49.9%), ‘복수응답률 첫 번째로 뽑았다. 다음으로 ‘학교별 서류 필터링 기준이 있다고 해서’(40.3%), ‘학교별 취업 양극화가 심해서’(34.5%), ‘교수, 선배의 도움 받을 기회가 없어서’(22%), ‘모교에 채용설명회 등의 기회가 없어서’(13%)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들은 학벌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으로 ‘실무 경험 등 쌓아 올린 채용 경력’(45.4%), ‘복수응답’, ‘토익 등 스펙

업그레이드’(37.8%), ‘더 나은 대학으로 편입, 재입학 준비’(18%), ‘공무원 시험 준비’(15.5%)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벌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66.6%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56.5%(복수응답)가 ‘사회 생활은 학벌만으로 되는 게 아니어서’를 선택했다. 뒤이어 ‘학벌보다 중요한 기준이 많아서’(51.3%), ‘직무와 연관된 게 아니라서’(39.9%), ‘학벌을 만회할 기회를 박탈해서’(27.4%), ‘좋은 학벌의 기준이 불분명해서’(24.9%) 등의 답변 순이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1,128명)들은 그 이유로 ‘노력의 결과라

서’(42.2%, 복수응답), ‘다른 스펙처럼 객관적인 기준이라서’(39.1%), ‘성실성을 증명하는 거라서’(32.9%), ‘학벌이 우수하면 역량도 우수해서’(24%) 등을 들었다.

한편, 조사 대상 중 직장인(1,813명)의 16.3%는 직장생활 중에도 학벌로 인한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일을 해도 더 낮은 평가 받음’(50.5%,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밖에 ‘학연, 라인업의 영향을 받음’(33.9%), ‘작은 실수도 학벌 때문에 부각됨’(30.2%), ‘학벌로 업무 기대치가 높음’(23.4%), ‘핵심 업무를 맡지 못함’(19.3%)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정복기자

충남교육청, 2015 충청남도 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꿈과 열정을... 장애 딛고 힘찬 도전 시작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4일 예산군공설운동장에서 장애학생 930명, 지도교사, 학부모 등 1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충청남도장애학생체육대회를 열었다. 충남교육청과 삼성 SD 천안사업장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와 충남장애인육상연맹이 주관하고 사랑의 밤차 경기·충남지부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대회종목은 총 146개 종목으로 육상 98개 육상종목과 48개 보급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선수대표 부르고 이주인 학생(고3)과 심판대표 충남육상연맹 남용현 심판의 대표선서를 통해 충남선수단 전체가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축제의 한마당에서 우정과 화합을 다짐 것을 다짐했다.

특히 금년에는 2013년 대회부터 공식 후원으로 주최해 온 삼성SD 천안사업장 임직원과 지역대학, 대한적십자 등 3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학생들이 불편 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내포=이지용기자



논산 백석초, 소방안전체험훈련 실시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 지원... 전교생 대상 소·소·심 바로알기

백석초등학교(교장 강해순)는 9월 3일 오전 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소·심 바로알기 소방안전체험훈련을 실시했다.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의 지원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불의의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소방안전체험훈련은 올바른 소화기 사용 방법 안내로 시작되었다. 유치원부터 6학년이 이르기까지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의 안전편을 열어 소화기 분사를 했으며 이어진 안전체험치량에 답습해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논산=한대수기자

아산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아산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 조성고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로 아산시와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이 합동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 내용으로는 학교정 화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및 주변지역 업소의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행위, 고용·알선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통행위,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규정 및 시간 준수 여부, 청소년보호법관련 표시 의무 등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등 배회 청소년 선도·보호 등이 있다.

민정일 교육지원담당관은 “아산시에서는 앞으로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세종시교육청, 3개월 간 실무수습 거친 뒤 내년 1월 정식 발령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기본 교육 수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지난 달 지방공무원 공채에 최종합격 신규임용 예정자 39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4일 모두 마쳤다.

이들은 지난 달 24일부터 2주 간의 일정으로 세종교육연구원에서 공교육 혁신을 위한 세종교육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청렴, 성실, 친절·공정, 비밀엄수, 품위유지 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 소양도 함께 함양했다.

특히, 교육예산 및 학교 회계에 대한 기본 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와 지방교육청·재정통합시스템인 에듀퍼인의 사용방법을 익히는 등 실무 능력도 갖췄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3개월 간 일선 학교현장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교직원화를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기자



전국 고등학생 조리제빵경연대회 열어

당진 신성대학교,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개최

당진 신성대학교(총장 김병목)는 지난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전국 고등학생 조리제빵경연대회를 호텔조리제빵계열 실습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는 조리제빵 전문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조리 및 제과제빵 분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창의적 인재를 발굴해 요리분야의 전문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고교생들은 외국인에 알리고 싶은 한국요리와 샌드위치를 주제로 조리 및 제빵 2개 종목에서 경합했고, 위생, 요리의 창작성 및 심용성 등의 항목으로 심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김승표, 김준혁 학생(상동고등학교)이 대상을, 김선아 학생(당진고등학교)과 이찬영 학생(당진 송악고등학교)이 조리부문 및 제빵 부문에서 각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당진=최근수기자

대전충남병무청, 지역 초·중·고등학교 참여 요청 쇄도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성황리 접수 중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2015년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이성수)은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에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참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인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우리 국민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보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4년에는 6000여명의 손편지가 접수됐지만, 올해에는 시작하지 4일 만에 25개 학교에서 약 8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는 참여를 희망한 학교나 단체에 자체 제작한 엽서를 보내 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 편지쓰기 페이지(www.mma-event1.kr)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운영지원과☎042-250-4227로 연락하면 된다.

이성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군 장병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은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만큼 많은 국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청양교육지원청,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청렴캠페인 실시 청양고추 구기제축제와 함께 청렴한 세상을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은 지난 4일, 청양고추 구기제 축제를 맞이하여 학부모청렴지킴이, 청정학교서포터즈, 소통동아리 “알프스” 회원들이 백색건강공원 입원에서 합동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부모청렴지킴이는 청남초, 남양초 학부모로 구성되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정학교서포터

즈는 학부모, 교직원등으로 구성되어 불법선조금 모금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청양교육지원청 산하 교직원으로 구성된 소통동아리 “알프스”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조직문화 역량 강화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등 시대적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청렴관련 UCC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청양=정성범기자



공주교육지원청, NIE 학부모 학습동아리 구성·운영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병택)은 지난 7월 21일 NIE 학부모 학습동아리 1차 모임을 시작으로 9월 2일 4차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외부 고객모니터링 통한 청렴 조직문화 조성

제5기 청렴모니터단 공개 모집

대전학생해양수련원(원장 전영석)은 외부 고객모니터링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제5기 청렴모니터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5기 청렴모니터단’은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선정된 모니터단 위원은 매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각종 공모 심사 참여, 해양체험활동 참관을 통한 생생한 의견 청취 등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운영 개선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된다.

조·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대전 교육가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에 희망하는 자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http://www.djseaorkr/) 공지사항이나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에서 모집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9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dlwogns011@duang.net) 또는 팩스(041-930-8420)로 제출하면 되며, 모집결과는 9월 24일까지 대전학생해양수련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안내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서산 학동초, 동전 2백만원 모아 사랑나눔 실천 서산 학동초(교장 정덕태)가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충청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랑나눔 동전모금’을 실천했다.

● 정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 7일 오후 2시 세종시 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세종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간부회의



김석환 홍성군수 = 7일 오전 8시 40분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 참석.

주간업무 보고회



황성봉 예산군수 = 7일 오전 8시 30분 제2회의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 보고회 참석, 오전 11시 무한천 둔치공원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 예산군연합회 화합대진대회 참석,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산사대 취약지역 지정위원 위촉식 참석, 오후 3시 덕숭산 종합정비사업 기본설계역역 중간 보고회 참석.

자립지원 프로그램 '꿈꾸는 나비'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원센터(소장 류권욱)는 전국 200개의 청소년지원센터 중 5개소만 지정하여 운영되는 꿈꾸는 나비 프로그램 진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꿈꾸는 나비 프로그램은 도 이치은행의 후원을 받아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킹과 연계하여 5월부터 지역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두드림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 미래의 꿈과 비전, 성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을 통한 기본 경제원리를 이해하여 합리적 선택과 돈 관리 방법 재미를 통해 쉽게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직업 찾기, 취업 성공 전략, 직장생활 미리보기, 자립준비 상태 점검, 일상생활 기술 습득, 자신의 성공 목표설정 및 다짐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을 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진로교육의 종합이라고 볼 수 있다.

두드림 프로그램은 9월 5일부터 시행해 11월 말까지 총 6회 가동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지역 내 청소년 총 16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처럼 세종시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디자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꿈드림은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계기로 세종시의 더 많은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자립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도 학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이정복 기자

새누리당 향해 내년 국비확보 '손짓'

충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등 지원 절실... 518억원 반영 당부

충남도는 지난 4일 대전시청서 열린 '새누리당-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 주요 국비 확보 대상 19개 사업과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과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안희정 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명수 정책위 부의장, 김동완·김제식·정용기·이예리사 예결위원, 김태홍·이장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도 국비 지원 사업 및 현안 건의,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서해안 및 장항선 복선전철, 당진~천안 고속도로,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대산~당진 고속도로, 덕산~고덕(국도 40호) 확포장 등 현황에 아시아 경제시대 중심도약의 디딤돌이 될 SOC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건



의했다. 이 중 특히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의 경우, 항만 시너지 효과 증대와 교통사고 위험 해소, 물류비용 절감 및 당진·평택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데다, 해양수산부가 올해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1순위'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만큼, 연내 예산 대상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보

이밖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내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시설 확충 78억 원,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신축 6억 50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복원 10억 원, 웰니스 스카 임상지원센터 구축 30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63억 원, 도시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 343억 원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지역자원의 공정한 거래! 신규개발전 정책 ▲해상자치권 법제화를 통한 갈등·분쟁 예방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직불금제도 ▲환경해결제권 주도적 준비 등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충청남도의 건의' 5대 과제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포=이지용기자

관광두레 5개 단체 선정

홍성군, 제1회 전국대회 참가 등 본격적 활동 전개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관광두레에 선정되어 관내 5개 단체를 홍성군 관광두레 주민공동체로 모집하였다고 5일 밝혔다.

선정된 홍성군 관광두레 주민공동체로는 문화예술 및 복지관광을 테마로 하는 온새미로(대표 신희천), 농어촌체험관광 및 관광플랫폼을 기반한 행복여행(대표 김영준), 아생화를 활용한 아생화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사)홍주들꽃사(대표 오카리나), 오카리나를 활용한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행복+희망관광(매니저 유지영), 홍성지역 탐방로 등 걷는 길 활성화와 주민여행사를 위한 홍성길등(대표 조경희)이다.

관광두레 주민공동체는 관광두레 PD(최철)의 중간지원 속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

원으로부터 3년간(최대 5년) 전문기관설립 등 공동체별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상품개발 및 창업실무교육, 경영개선 지원, 신진사에 견학, 파일럿 사업 마케팅 등 비즈니스 성장기반 구축에 들어간다.

군은 이번이 선정된 5개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아쉽게 탈락된 5개 주민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전문가, 사회적경제단체, 거버넌스, 대학, 지역기업 등 자문 및 협력 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광네트워크로 체계적인 관광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홍성군의 지속적인 관광산업을 위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 관광두레 주민공동체는 지난 9월 2일~3일 무주에서 열린 제1회 관광두레 전국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내포=이지용기자



행복도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안전관리문화 향상·품질시공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청장 이충재)은 3~4일까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의 공사감독 및 감리원을 대상으로 '행복도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복도시의 안전관리 문화를 향상시키고 품질시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간담회는 각 건설현장에서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해 아직도 일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빨리빨리 적당주의'를 근절하고, 발주처 감독과 건설현장 감리원 간의 소통의 공간이 됐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도시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이고 새로운 건설문화를 창출해 모범적인 행복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제3회 세종고용전략포럼 열려

세종시, 3~40대 경력단절 여성 고용 창출 토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4일 오후 이해찬 국회의원회와 세종시 홍영섭 정무부시장, 지역고용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의대 아트홀에서 제 3회 세종고용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부처 이전 등과 맞물려 급증하고 있는 30~40대 경력 단절 여성의 고용 창출을 위해 마련됐으며 '세종시 경력단

절 여성의 구인구직 현황과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홍영섭 정무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2개 과정의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 고용복지+센터 개소에 맞춰 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원기자



불법 유동 광고물 스마트폰으로 잡는다

예산군, 1년 365일 휴일 없는 신속 정비·단속 실시

예산군은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군청 실과 및 12개 읍면 소속 공무원 3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 구성을 완료하고 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와 합동으로 1년 365일 휴일 없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모니터단 소속 직원은 출퇴근이나 출장 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시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실시간 불법 광고물 신고업무를 담당하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민 또한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앱에 등록된 불법 유동광고물 사진과 위치정보를 확인해 신속히 철거에 나서며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한다.

아울러 군은 적발 즉시 정비와 제재에 들어가며 상습적인 불법 유동 광고물 설치자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를 실시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앱을 활용한 실시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정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모니터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의 실천의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로니아 활용 식품제조 교육마련

예산군, '선제행정 일환' 부가가치 창출 기대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일 농산물가공연구회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기술센터 내 농산물 가공실에서 아로니아를 활용한 식품제조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로니아의 소비촉진과 흡수출하에 의한

농성 가루 트레할로스과 아로니아·블루베리·오디를 이용해 만드는 트라플 베리잼, 아로니아 발효청을 이용한 마시는 식초음료 등 과육이 단단하며 단맛이 적은 아로니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제조와 가공법을 전수받았다.

교육에 참가한 가공연구회원은 "아로니아가 효능은 좋은 반면 맛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발효청을 활용한 식초와 간편 와인 등 새로운 가공법을 전수받아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우리지역 농·특산물인 사과와 아로니아를 활용한 식품가공교육을 이번에 처음 실시했는데 관심과 호응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로니아 가공교육을 확대 실시해 판로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격하락 예방을 위한 선제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강사로 초청된 이정숙 정무부시장 대표는 아로니아의 특성을 살린 식품제조 및 가공 방법을 실습 위주로 교육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생들은 사과생즙을 활용한 무설탕 아로니아 잼, 설랑대용 기

동정

동행 50년 행복금혼식



김홍장 당진시장 = 7일 오전 7시 30분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경영진단 최홍보고회에 참석,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 참석,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열리는 사랑으로 함께한 동행 50년 행복금혼식에 참석.

당진시의회 임시회



이재광 당진시장 = 7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 참석.

군정조정위원회



한성기 태안군수 = 7일 오전 9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

주간업무계획 보고회



이석화 청양군수 = 7일 오전 8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업무계획 보고회를 주재.



아산시 저염식매뉴얼 책자 보급

아산시는 관내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 어린이들의 미각형성 전(前) 저염식 식습관을 형성 시켜주기 위해 '저염식 매뉴얼' 책자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는 ▲소금의 이해 ▲식품별 나트륨 함량 ▲저 나트륨 식생활 실천 요령 ▲외식 중 나트륨 함량 및 염도 등의 내용을 수록해 나트륨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급식소에서 비교적 다빈도로 활용하는 밥&죽류, 반찬류, 국, 스프류 등의 메뉴를 선택해 저염식 레시피를 담아 실제 저염식을 조리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저염식 매뉴얼은 어린이급식시설 및 대형 집단급식소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배부될 예정이다.

아산시 남해수위생감독관은 "본 교재를 통해 저염식 매뉴가 지역에 보급돼 아산시 관내 시민건강은 물론 어린이들의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에 이바지되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제70회 충남 도민체전 유치 신청서 제출

태안군, 지난 4일 충청남도 체육회 방문해 유치 의사 공식 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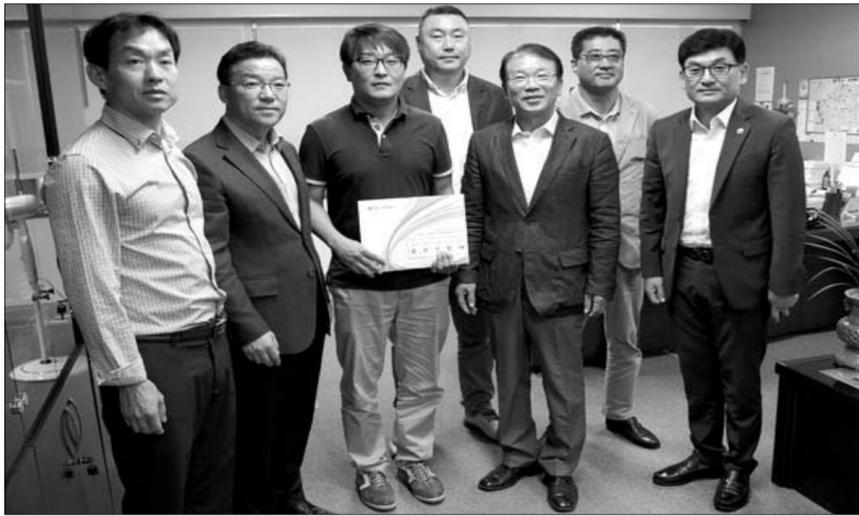
태안군이 지난 4일 제70회 충남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충청남도 체육회에 제출했다.

군에 따르면, 권오인 도민체전유치추진위원장, 전장균 태안군체육회상임부회장, 김용운 사무국장과 군 관계자 등은 4일 도 체육회를 방문해 제70회 도민체전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며 군의 대회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군은 당초 내후년 열릴 예정이던 제69회 충남도민체전의 유치를 희망했으나, 올해 예산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67회 도민체전이 메르스로 인해 취소되면서 오는 2018년에 개최될 제70회 도민체전 유치전에 나서게 됐다.

군은 올해 도민체전 개최 취소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체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며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지난 2013년부터 태안을 평전리 일원 총 9만 4470㎡ 면적에 추진 중인 종합운동장 건설 사업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각종 목적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차질 없



는 대회 개최를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지역 체육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도민체전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도민체전 유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

다.

한성기 군수는 "군민체전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제70회 도민체전이 태안군에서 개최돼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

체육 분야의 발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70회 도민체전 개최지는 내달 중순경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시립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풍성'

당진시가 시립도서관 13곳에서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 행사는 도서관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로서로 독서로'라는 슬로건으로 독서법 강연, 인형극공연, 원화전시, 동화 구연 등 책 관련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각 도서관 공동으로 9월 한달 동안 1인당 도서 대출권수를 5권에서 8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도서관 연체 등으로 이용이 정지된 회원을 구제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해 독서생활화와 독서진흥을 도모한다.

또한 3곳의 공공도서관에서는 ▲그림책 원화전시(2일~13일/중앙) ▲시민도서교환전(19일/중앙) ▲효과적인 책읽기 방법지도(20일/

중앙) ▲알뜰당콩 책놀이(11일/합덕) ▲행운을 잡아라(15일~16일/합덕) ▲어린이인형극(24일/송악)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10곳의 공립도서관에서는 ▲소근육발달을 위한 책놀이(18일/원당골초롱) ▲책 제목 퍼즐게임(12일~13일/송악센터) ▲나만의 도서관 가방만들기(11일/고대웃음꽃) ▲그림으로 표현해요(13일/새호지책나라) 등이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책읽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월별 도서관 선정해 추진하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공도서관 3개소, 공립작은도서관 10개소 등 총 13개소의 시립도서관에 32만 6299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송악도서관을 최신 시설로 신축 개관하는 등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조성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웃는 아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청양군, 찾아가는 아빠교실운영·공감대 형성하는 계기 마련

청양군이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웃는 아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찾아가는 아빠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아빠교실은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관계형성을 돕고 육아의 즐거움과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출산 전회적 사회분위기 확산 및 가정 양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일 정산어린이집에서 운

영된 아빠 교실에서는 피자과 케이크 만들기, 아빠와 함께하는 유아댄스, 내 아이에게 손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모(39)씨는 "항상 직장생활을 핑계로 자녀와 가정에 소홀했는데 아이와 함께 모처럼 유익한 시간도 보내고 육아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호응을 보였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여성전담으로 여겨지던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아빠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는 놀이 등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육아가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깨닫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 보건의료원은 오는 11월

중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육아의 달인 아빠를 찾아라'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태안군 유해 야생동물 포획반·농민 고충 해소

농작물 주변 멧돼지 2마리·고라니 570마리 포획 성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안군이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유해 야

생동물 포획반'이 뛰어난 실적을 거두며 농민들의 고충 해소에 앞장 서고 있다.

태안군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 '멧돼지 기동 구제반'을 통해 멧돼지 두 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 지난달 17일부터 운영 중인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4일 현재 고라니 570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멧돼지 기동 구제반'은 지난 7월부터 태안읍과 고남면 일대에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군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편성한 것으로,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전문 역사가 태안읍과 고남면에서 각각 1마리씩 포획에 성공했다.

또한, 8개반 20명으로 구성된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8개 읍·면에서 농작물 주변에 출몰한 고라니를 대거 포획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성공적인 운영에 나서고 있다.

구제반은 농작물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활동을 전개했으며, 군은 전문성을 갖춘 충남수렵환경보호협회의 야생생물관리협회 태안군지회 소속 역사들로 구제반을 구성해 안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야생동물 포획단의 성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야간 운전자의 도로 안전 확보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구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우리/동네



아산시 '인주나눔장터' 열려

누구나 행사장에서 현장접수 통해 참여할 수 있어

아산시 인주면 인주면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인주휴먼시아아파트 놀이터 일원에서 「2015 인주나눔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의류, 도서, 장난감 등 중고물품을 가지고 나와 직접 교환·판매할 수 있는 장터로 아산시민 누구나 행사장에서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의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주면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풍물대 공연으로 시작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홍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펼쳐진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각종 부점, 음료 등 먹거리를 판매해 그 수익금 전액을 연말보훈기부금에 기부할 계획이다.

아산시 인주면 오세규 인주면장은 "나눔장터를 통해 아나보다 생활문화가 정착되고,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정부3.0 알리기 '앞장'

청양고추·구기자축제에서 부채, 리플릿 홍보

청양군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16회 청양고추·구기자축제를 이용해 3000여명의 관광객에게 부채와 홍보물을 나눠주고, 홍보영상 상영하는 등 대대적인 정부3.0 홍보를 펼쳤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패러다임이다.

축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부3.0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한 개념을 몰랐는데, 홍보물을 관심 있게 보니 정부3.0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청양군은 정부3.0 시책으로 행정이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바로바로 해결하는 민원처리방 ▲맞춤형 귀농·귀촌서비스 ▲복지사각지대해소기금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소통과 협업으로 효율적인 행정구현을 위해 ▲청양·공주·부여 지역행정생활권 공동추진 ▲협업을 통한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청양군이 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는 투명한 정부를 위해 ▲농업·농가통계시스템구축 ▲공공정보 홈페이지 적극 공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양군 관계자는 "청양군은 정부3.0 전국모범육성기관으로서 군민이 원하는 것을 찾아 해결해주고, 군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책 발굴로 군민행복 일번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당진시 다중이용시설 특별 안전점검

당진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당진시,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 당진소방서, 도 사회재난과, 도 안전관리지문단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합동점검반은 운수시설(1), 의료시설(5), 노유자시설(8), 운동시설(1), 교량(2) 등 17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판매시설(2개소), C등급이하 교량(5개소), 육교(8개소) 등의 13개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 자체 점검반을 구성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균열, 지반 침하, 유사시 대피로 확보여부, 전기·가스 사용시설 누전·누출여부, 누전 차단기 설치·작동 손상, 비상전원 확보, 가스누출 차단기 작동 여부 등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고향을 찾는 많은 귀성객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며 시일을 요하는 보수보강사업은 추석명절 이전 완료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입장거봉포도축제 12일 개막

천안시, 각종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2015 입장거봉포도축제 및 제5회 전국어린이사생대회’가 ‘神의 선물, 자연의 맛, 입장 거봉’이라는 주제로 9월 12일~13일 이틀간 입장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천안의 대표적 농특산물로 자리잡은 거봉포도의 주산지인 서북구 입장면은 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거봉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입장거봉포도축제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역 기관단체 및 포도작목회 등의 후원과 주민들이 뜻을 모아 거봉포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포도시식 및 체험행사 등 풍성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

9월 12일 저녁 7시 개막식에 이어 시립예술단 등이 출연하는 반딧불 가족음악회가 열려 향긋한 거봉포도 향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축제 둘째 날인 13일에는 오전 10시 품바공연에 이어 포도 체험, 퀴즈 등 포도이벤트 프로그램이 오후에는 입장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 밸리댄스, 통기타 등 평소 갖고 싶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준비될 예정이다.

오후 6시부터는 스텔라, 박성철, 진성, 조은재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거봉가요제’가 열려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전국 초등학생, 미취학생 어린이 400여명을 대상으로 제5회 전국어린이 사생대회가 입장면 포도농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참가 어린이들의 포도농장 체험학습을 위해 직접 포도농가를 방문하여 포도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며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예쁜손 글씨, 요술풍선, 페이스페인팅, 포도따기, 유리공예 등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캐리커처 등 추억만들기 행사도 곁들여 거봉포도의 향취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천안=김정환기자

“가을이 옵니다 전어가 옵니다”

제15회 서천 흥원항 자연산전어·꽃게 축제 열려

서천군은 제15회 서천 흥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 ‘이하 흥원항 전어축제’를 오는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서천군 서면 흥원항 일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흥원항 전어축제」는 서해안을 대표하는 미식 축제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전어와 꽃게의 고소한 맛을 보기 위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9월의 지역축제행사로 뽑히는 등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전어는 매년 9월 중순부터 하순까지가 빠가연하고 기름이 올라 전어 특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기로 서천군에서는 이 시기에 맞추어 매년 흥원항 전어축제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전어·꽃게축제는 개막식 초청가수공연을 비롯해 맨손으로 전어잡기, 추억의 놀이체험, 흥원항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비눗방울 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고, 서천군 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관광객 노래자랑 등을 통해 관광객들과 함께 보고, 듣고, 맛보고,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한편, 축제가 열리는 흥원항 주변에는 서해바다의 환상적인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동백정이 있으며 드넓은 바닷가의 천연 갯벌을 배경으로 조개잡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월하성과 비인선도리 갯벌체험장이 있어 주말가족여행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서천=김태성기자



계룡시 실내 화분관리 참 쉽죠잉

농업기술센터, 총 8회...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

계룡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는 실내식물 기르기를 통한 생활원에 확산을 위해 ‘가을철 화분치료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실내 화분의 분갈이 요령과 해충 방제기술 및 실내식물 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실습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 분갈이는 개인당 3점까지 가능하며, 분갈이용 화분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상토와 고형비료 등의 무상 제공과 함께 필요시 병해충 방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민의 가정원에 볼 통한 정서순화와 도시농업 촉진을 위해 원예활동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또 한번의 쾌거’

논산시, 전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대회서 충남도 유일 ‘대상’수상

논산시(시장 황명선)의 노인복지정책이 정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는 쾌거를 연일 기록하고 있다.

논산시가 지난해 추진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14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공군회관 3층(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된 노인복지사업 종합평가대회에서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 최우수기관 및 우수수행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에 수상하는 종합평가대회에서 또다시 대상을 거머쥐어 명실공히 노인복지정책 분야 우수도시임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가점을 받아 사업비 증액 등 인센티브와 포상금 등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2014년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17개 항목에 대해 244개 기초단체간 고차평가로 이뤄졌다.

특히 시는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등 14개 노인일자리 추진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과 사업목적 구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지역사회의 안전·돌봄과 관련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충, 어르신들이 교육기관 및 지역자원 연계 기관에서 참여토록 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에 힘써왔다.

특히 노인일자리 전담부서와 대

한노인회 노인취업정보센터가 긴밀하게 연계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 공급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황명선 시장은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선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스스로 당당한 인생 이모작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시니어클럽 설치 등 100곳의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올해 13억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17개 단위 사업별로 66세 이상 어르신 750여명이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

논산=한대수기자

젊은 공직자 토크 특 특 튀는 아이디어 기대

“부어비전 주니어보드” 워크숍 열려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3일~4일 이틀간 부여보건소에서 공직에 새바람을 일으킬 젊은 공직자 모임 “부어비전 주니어보드”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어비전 주니어보드”는 20~3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

모임으로,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한 젊은 아이디어 행크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보광 하도 이파리 리더십센터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젊은 직원들의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안서로 어떻게

표현하고 발표해야 하는지 코칭해 주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롭고 격의 없는 토론을 펼치고 평소 생각하고 있던 군정에서의 새내기의 역할 등 다양한 생각들을 마음껏 표현하고 발표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새내기들은 우리 조직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부여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젊은 직원들의 토크 튀는

역발상 아이디어들이 모여 지역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부여군은 2016년 상반기에 주니어보드 구성원들을 참석시켜 2016년 군정의 방향을 공유했으며 향후 각종 군정현장 견학 및 교육, 보고회 참석, 우수 아이디어 발표대회 등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여=이정복기자

“연춘교 개량 착공 가설교량으로 통행하세요”

천안시, 연춘교 위험진단 따라 교량공사



천안시가 연춘교 개량을 위한 가설교량을 설치하고 5일부터 통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북면 연춘리 시도22호(구 국도 21호)에 위치한 연춘교는 그동안 수차례 바닥판이 파손되어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시설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 5월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바닥판이 중차량 통행에 취약하고, 안전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진단되어 긴급하게 재난 관리기금을 투입을 결정하여 지난 6월부터 바닥판 교체 공사를 추진

하고 있다.

시는 우선 연춘교 바로 옆에 임시 가설교량 설치를 완료하고 기존 연춘교에서 가설교량으로 9월 5일부터 통행을 변경한다.

인석진 건설도토과장은 “연춘교 개량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통을 가설교량으로 우회시키게 되었다”며 “본도도가 아닌 가교인 만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서행 및 안전운전을 부탁드리고, 공사기간 다소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 3월 준공예정인 연춘교 개량공사를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천안=김정환기자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 하세요

서천군, 제23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4일 서천특화시장 일원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은 안전점검에서부터’를 모토로 제234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서천군 공무원과 경찰서, 소

방서, 농어촌공사, 전기안전공사, 서천을 남·여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절 연휴가 스텔라 및 누전차단기 점검 시장화재 예방요령, 비상구·소방 출동로 확보 등 안전을 위한 예방요령을 집

중 홍보했다.

특히, 생활주변 안전취약요인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홍보용 물티슈와 전단을 배포해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기울였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날 캠페인에서 “이번 추석에는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여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서천군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 하세요”처럼 매일 4일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생활화 하도록 홍보해 안전사고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김태성기자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는 논산시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평생학습도시 선정 증서 동판 수여받아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4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서 2015 신규 평생학습도시 증서와 동판을 수여받고 명실공히 평생학습 도시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은 논산시를 비롯한 2015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지명된 7개 지자체가 황우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증서를 전달받은 후 기념화 국가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평생학

습도시 동판을 수여받는 순으로 진행했다.

4일부터 3일간 “배우는 기쁨, 함께하는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전국 280여개 평생학습 기관·단체가 참여해 평생학습 홍보관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 평생 학습의 발전상을 한눈에 알아보고 체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교류의 장이다.

논산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학습 ON, 행복 ON’, 「사람중심! 행복학습도시 논산」이라는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주요 평생학습사업 및 성과 홍보 ▲척교방학제만들기 ▲땀기함 가득 비누만들기 ▲외국 주스만들기 ▲체험휴양마을 및 교육농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행복학습도시 논산 널리 알리는 한편, 논산의 주요 관광지 등도 적극 홍보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후 교육부로부터 국비지원 등 우리 나라 평생 학습의 발전상을 한눈에 알아보고 체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교류의 장이다. 논산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학습

앞으로도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논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등 총 20개의 평생교육 특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언젠,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특화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논산=한대수기자

동정

마을아카이브 착수보고회



구분영 천안시장=7일 오전 8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마을아카이브’ 착수보고회에 참석.

화합체육대회



황명선 논산시장=5일 오전 9시 30분 부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부직초등학교 개장식에 참석, 오전 10시 부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부직면 화합체육대회에 참석.

9월 확대간부회의 주제



노박래 서천군수=7일 오전 8시 30분 회의실에서 열리는 9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세계유산활용방안보고회



이용우 부여군수=7일 오전 8시 30분 브리핑실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 및 세계유산활용방안 보고회 참석

부여군 “아름다운 노후 준비하세요”

올해 범국민 의식개혁 도의교실 열려

부여군(이용우 군수)은 지난 4일 여성문화관에서 이용우 부여군수를 비롯한 바르게살기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범국민 의식개혁 도의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바르게살기운동부여군협의회 주관으로 최근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지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도의교실 강사로 초빙된 노금선 선화복지 재단 이사장은 “아름다운 노후를 살자”라는 주제로 노년기를 보다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등을 강의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2015년 범국민 의식개혁 도의교실은 오는 9월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부여=이정복기자

코스모스 활짝 가을추억 만들기 시작

계룡시, 금암동 유휴부지 1만2000㎡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금암동 공용버스터미널 예정부지에 코스모스가 만개하여 시민들과 계룡시를 찾는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1만2000㎡의 유휴부지에 코스모스 꽃씨를 파종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지난 달 말부터 코스모스가 만개하여 가을의 소중한 추억만들기 장소로 각광 받고 있으며, 작은 바람이라도 불면 수줍은 듯 은뭍을 흔들며 대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에 청명간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정겨운 가족나들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운동이나 산책 등의 색다른 장소로 추천해도 후회는 없을 듯하다.

시는 앞으로 봄과 여름에는 노란 유채꽃을, 가을에는 코스모스 등 아름다운 들꽃을 연출할 수 있도록 식재하여 사계절 내내 즐거움과 행복의 보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쉼터를 확대 조성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문화도시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월요주간보고 주재



오시덕 공주시장= 7일 오전 8시 20분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월요주간보고를 주재,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재)공주시한미음향학회 이사회 참석.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업무 협약식



김동일 보령시장= 7일 오전 8시 2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주간현안 사항 보고, 오후 4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보령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업무 협약식 참석.

시민대중 건립 간담회



이완섭 서산시장은 7일 오전 9시 1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읍면동장 회의를 주재,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발전유공시민 시상식에 참석, 오후 4시 시장실에서 시민대중 건립 간담회 참석.

푸른환경탐구회 간담회



박동철 금산군수= 7일 오전 11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푸른환경탐구회 간담회 참석.

공주시한미음향학회 이사회



조병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7일 오후 2시 공주시청에서 열리는 제3회 공주시한미음향학회 이사회 참석.

‘비정상적 정상화’ 제안 공모전

공주시, 공공부문·법질서·국민안전·시민불편 등 4개 분야 아이디어 접수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비정상, 국민정서와 상식에 어긋나는 비정상,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법령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정상적 정상화’를 위한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국민안전 확보 ▲기타 시민불편 해소 및 편익 증진 시책 등 4개 분야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항로 1 공주시청 시정발전연구과, 전자우편(writer1213@kora.kr), 팩스(041-840-2338)로 하면 된다.

금주=정성범기자

보령 오천항 ‘키조개’ 본격 채취 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피부미용에도 탁월

충남 보령의 오천항에는 7-8월 산란기 금어기간이 끝난 키조개가 이따부터 본격적인 채취로 미시가 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키조개 칼로리가 100g 당 57kcal로 칼로리와 지방함량이 낮아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또한 다량의 타우린이 들어 있어 피부미용에도 효과적이다.

한편, 키조개로 유명한 오천항은 천수만을 앞에 두고 있는 여항으로 바다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길목에 있어 옛부터 상업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항구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충청수영이 있는 한반도 중부 해안 지역의 군사 요충지로 쓰였다.

건강한모유수유아선발대회



보령시는 지난 3일 세영취폐에서 관내 건강한 모유 수유아와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4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모유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으며, 현재 모유수유 중인 생후 4-6개월 사이의 건강한 아기 23명이 참가했다

이날 제천대학교 임은선 간호학과 교수 등 3명의 심사위원단은 아기의 신체발달, 성장발달, 모지관태도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최우수상 전종욱(남)아기, ▲우수상 김세하·차예진(여)아기, ▲장려상 박시현·김슬아·백대은(여) 등 6명의 아기를 건강한 모유 수유아로 선발했다.

특히, 최우수상과 우수 수상이 3명은 9월 17일 아산에서 개최되는 충남도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모유가 아기에 가장 좋은 영양공급원이고, 엄마의 건강과 모자간 유대관계에도 효과적이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으며, 아기와 엄마들에게 가족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소중한 예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알려드립니다”

공주시, 3200필지 대상... 이달 말까지 열람·의견제출 접수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015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소는 공주시청 토지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이며,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의 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공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0일까지 지가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후 통보하게 된다.

열람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적변경 등을 실시한 3200필지로 열람 장

열람내용은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을 말하며, 의견제출 된 필지에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12월 30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되고,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가방식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공주=정성범기자

2015 충남도 공무원 수화경연대회

금산군 ‘마중물팀’ 최우수상

2015년 충남도 공무원 수화경연대회에서 금산군의 ‘마중물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남도가 후원하고 한국농어인협회(회장 한영희)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렸으며

충청남도 12개 시·군 공무원들이 참가했다.

수화를 통한 뮤지컬과 연극을 선보였으며, 대회를 통해 농어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형성하는 소통의 장으로 다가갔다.

금산 마중물팀은 의상과 소품 등을 직접 제작하는 등 주민복지지원실과 읍면 공무원이 혼연일체로 5개월 동안 업무와 병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방귀와 싸움’이라는 연극을 통해 자만심이 아닌 자신감 그리고 소통과 배려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최우수상의 결과를 얻어냈다.

금산=김남규기자

우리/동네

승객 돈 찾아준 택시기사 ‘훈훈’

문원우 씨, 두고 내린 현금 160만원 찾아줘



서산의 한 택시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 160만원을 찾아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훈훈케 하고 있다.

뒤늦게 지급을 발견한 택시기사 문원우(68·남)씨는 승객을 내려준 1호광장을 다시 찾았고 역시 지급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고 자신이 내린 곳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김모씨를 만나 지급을 되돌려주게 됐다.

시례를 하겠다는 김모씨의 말을 뒤로 하고 택시기사는 급히 자리를 떴다고 한다.

지갑을 잃어버렸던 김모씨의 아들 박모씨가 택시기사를 칭찬해 달라는 내용을 시청에 부탁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문씨는 “나도 돈을 잃어버린 입장이었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이라며 “그 심정을 알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주인을 찾아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썩스럽다’며 멋쩍어했다.

한편 서산시는 시정발전 유공시민 시상식에 문씨를 선행시민으로 표창할 예정이다.

BCG 예방접종 사전예약제 실시

결핵(BCG) 피내용 예방접종 백신의 국내 수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산군보건소가 사전예약을 통한 신생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8월말 이후 9월 출생아는 9월 넷째 주(21일 이후)부터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할 수 있다.

BCG 예방접종은 보통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하지만, 생후 89일까지는 결핵감염검사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으로 실시하는 경피접종은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어 현행대로 관내 연세소아과, 우리소아과, 중앙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BCG 미접종 영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람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군청과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BCG 예방접종 안내를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BCG 예방접종 예약관련은 보건소 예방접종실(041-750-4388)로 문의하면 된다.

금산=김남규기자

음식물 안 남기기 시민운동 펼쳐

서산시, 서한문 발송·동영상 제작 SNS 통해 홍보

서산시는 지난 3일 동부시장에서 영업주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음식물 안 남기기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산시지부 산하 영업주들과 서산라이온스·포터리 등 사회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여했다.

시장상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 시민 실천수칙 안내문 배부 등 음식점과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방법을 안내했다.

앞서 시는 올 8월부터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음식물 안 남기기 동참 협조 서한문 발송 및 동영상 제작 SNS를 통해 홍보해 왔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산시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1만 6천여톤에 처리비용은 2억원이 든다”며 “자원도 절약하고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산=김정환기자

Advertisement for Hanawee (주) featuring 'Greystream' cleaning and maintenance services. It includes images of clean and dirty kitchen equipment, contact information for Daegu branch, and a list of services like sink cleaning and drain unclogging.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머님은 내머느리 (SBS오전 8시30분)



수경은 주회장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는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민을 간신히 찾은 수경은 경민과 주회장의 병원에 가고, 결국 함께 주회장의 임종을 지켜본다.

이브의 사랑 (MBC오전 7시50분)

캘리 한진서연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저마다 각자 놀라는 표정을 짓는데, 캘리는 자신을 첩 쫓아온다.

케이블 명화

관상 (OCN 오후 4시00분)

왕의 자리가 위태로운 조선. 얼굴을 통해 앞날을 내다보는 천재 관상가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사람의 생김새, 얼굴 모습, 또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운명, 성격, 수명 따위를 판단하는 일, 바로 '관상'이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 내경. 처남 '평헌', 아들 '진행'과 산속에 칩거하고 있던 그는 관상 보는 기생 '연홍'의 제안으로 한양으로 향하고, 연홍의 기방에서 사람들의 관상을 봐주는 일을 하게 된다.

왕의 자리가 위태로운 조선. 얼굴을 통해 앞날을 내다보는 천재 관상가가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의아시아 총괄 본부장이라고 소개한다. 구회장이정갑은 캘리로부터 투자를 받아 리조트 사업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할거라고 하는데, 강모(이재황)와 강민(이동하)은 반대하며 나선다.

별이 되어 빛나리 (KBS 오전 9시)



집으로 돌아온 동필은 애숙에게 자신이 재균을 죽인 것 같다고 말하고 정례에 가족들은 재균의 소식을 듣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다.

AI (채널CGV 오후 10시00분)

극지방의 해빙으로 인해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지구상의 모든 천연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어느 미래.

극지방의 해빙으로 인해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지구상의 모든 천연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어느 미래. 인류의 과학문명은 천문학적 속도로 발전하여 인공 지능을 지닌 로봇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집안일, 정원 가꾸기에서부터 오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까지. 로봇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갖은 일을 대신하게 된다.

어느날, 하비 박사(윌리엄 허트)는 로봇공학 발전의 마지막 관문이자,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감정이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다.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엄마' 홍수현, 귀여운 속물녀 완벽 변신...성공적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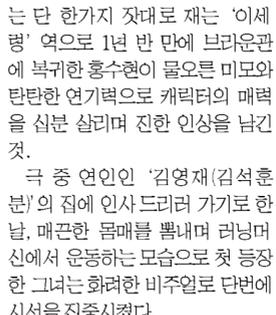
첫 회부터 주말인방극장 시청자들 사로잡아



배우 홍수현이 '귀여운 속물녀'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해내며 첫 회부터 주말인방극장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지난 5일 첫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엄마'에서 모친의 영향을 받아 세상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라

안산시, 은행나무길에서 '시월의 공연을'



10월 아산의 대표 거리 '은행나무길'에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2013년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이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 일상의 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은행나무길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지만 소중한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엔트맨' 개봉 4일만 100만 관객 돌파...NEW 히어로의 위업



지난 3일 개봉 직후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해 전국 관객을 열광시킨 마블의 NEW 히어로 '엔트맨'이 개봉 4일째 100만 관객을 돌파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일) (오늘) 영진위 통합전상망 실시간 관객수 집계(오후 12시 10분 기준)에 따르면, '엔트맨'은 107만 1425명을 기록했다.



법무보호공단 대전충남지부(지부장 박태규)는 지난 3일 대전청소년수련마을(충주점산동)에서 자원봉사자 전진대회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자총연맹 서구지회, 장애인과 함께한 어울림 한마당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김영문 회장과 회원 70명은 지난 4일 서구도솔체육관에서 열린 서구장애인생활체육 주간 체육대회에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을 펼쳤다.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281-1101 ▶ SBS (02)369-1090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케이블 & 위성 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s, including OCN, MBC, SBS, YTN, and others.



한발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 실시 9월 2~3일까지 산업정보관 D-301강의실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전고용센터 최상호 주무관의 강의로 NCS 도입 배경, 인적성검사 등 기존 채용방식과 차이점, NCS 기반 채용공고 이해와 입사서류 작성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진행됐다.



서산시 팥밭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사립의 배추 파종 서산시 팥밭면(이경구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 회장 이정식, 김순자) 회원 10여명은 3(목) 어송리 소재 500여평의 밭에 김장 배추 1천500포기를 파종했다. 이번 파종한 배추는 올 가을에 수확해 김장을 담겨 독거 노인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예정이다.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 장학금 지원 아산시 온양3동(동장 전병관)과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이정호)은 지난 2일, 온양3동 회의실에서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은 발족 이후 6년째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 5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9월 중 추첨식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100가정에 대하여 현금으로 3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계룡산국립공원 시민대학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석원)는 지난 4일 수통골 내이치센터에서 4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시민대학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한국가사문화연구원 강사 초청, 한시 및 현대시를 통한 감성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조폐공사 『화폐의 추억과 함께 떠나는 여행』 실시 대전지방보훈청(청장 이명현)은 지난 3일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와 함께 대전·세종지역 국가유공자 및 보호가족 80명을 초대해 화폐박물관 및 충청남도 산림박물관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지역 인재 육성 위해 뜻 모아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에 기탁 '귀감' 공주시청 사무관 임용공무원 6명, 장학금 기탁

지난 8월 사무관 임용을 받은 공주시청 6명의 공무원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뜻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자로 사무관에 임용된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윤도영 수도과장, 오종휘 건강과장, 김영신 신관동장, 양재웅 율송동장, 정우원 전문위원 등 6명의 공무원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지난 3일 장학금 3천만원을 (재)공주시 한마음장학회에 기탁했다. 특히 이들 사무관 임용자 대부분은 지역 발전을 위해 30여년간 많은 바 임무에 몸소 열심히 일하면서 그동안 교육도시 공주시 공무원으로서 지역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사무관 임용 교육기간동안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훈훈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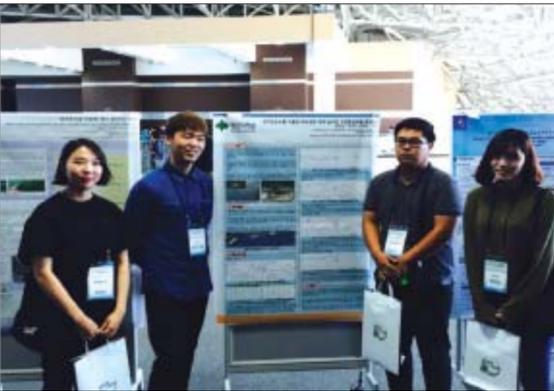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윤도영 수도과장, 양재웅 율송동장, 오시덕 공주시장, 김영신 신관동장, 정우원 전문위원, 오종휘 건강과장이 기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동양건설(주) 정해상 대표는 지난해 말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도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으며 ㈜윙윙건설 전용갑 대표도 300만원을 기탁,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동참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학부생 '공동학술발표회' 최우수상 수상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학과장 조윤철 교수) 학부 학생들이 지난 달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거행된 대한상하수도학회와 한국물환경학회 공동주최하는 2015 공동학술발표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학생들을 지도한 임봉수 지도교수는 "실험실 동아리 <물사랑> 팀원들이 방학중 실험실과 현장에서 경험한 자료를 잘 정리하여 포스터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현장실습 및 논문작성 등의 경험들이 이번 경연대회까지 연계되어 학생들 개인전공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기회가 더 확산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금폐수처리공정의 효율 평가 및 특징을 발표한 3학년 한만형(발표자), 심주현, 곽영지, 2학년 박정수 학생 등 3개팀이 최우수 및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이경복기자



건보공단대전본부, 충북지역세 번째

옥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34호점 개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는 지난 4일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민순)에서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학력신장을 위한 작은 도서관인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34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만3000여 임직원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33곳에 개소했다.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는

예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 중구 외국어인문대학을 위한 작은 도서관인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34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덕흠 국회의원, 김영만 옥천군수를 비롯한 내빈, 다문화가족과 지역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송병배기자

아산 희망카페 봉사회, 매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돕기 실시 장애시설 '온유한집' 찾아... 봉사활동



지난 5일 아산 희망카페 봉사회(회장 윤은중)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회원들의 자비로 실시되며 이번행사는 안희정장을 비롯해 윤은중회장을 비롯해 이영국 박사모 아산지회장, 이교식 아산시정연구위원장, 이건영, 안예숙 희망카페 봉사회 총무, 이기원 등 회원들이 선장 장애시설 온유한집을 찾아 음식을 제공하고 주변정리 및 집조제 등 환경정화 작업을 실시했다.

윤은중 회장은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분들이 잠시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

웃는 아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청양군이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웃는 아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찾아가는 아빠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아빠교실은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관계형성을 돕고 육아의 즐거움과 가치를 한 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일 정산어린이집에서 운영된 아빠교실에서는 피자와 케이크 만들기, 아빠와 함께하는 유아댄스, 내 아이에게 손편지 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여성전담으로 여겨지던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아빠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 등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육아가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깨닫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동정 ●

도정간담회



안희정 충남도지사 = 7일 오전 10시 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초청 도정간담회에 참석, 오후 4시 대전 충남학생기숙사에서 열리는 충남학생기숙사 신축이전 개원식에 참석.

청소년희망나비센터 입교식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7일 오후 5시에 천안 선도장학회에서 열리는 '청소년희망나비센터 입교식'에 참석.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 선정



심훈문학문화재단 집행위원회(위원장 한기환)가 지난 3일 제2회 심훈문학대상에 고은 시인(사진)을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심훈문학문화재단 집행위원회가 주최하고 계간 'ASIA'가 공동 주관하는 심훈문학대상은 평화와 정의,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세계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작가들을 수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훈문학대심사위원회는 이어 령(전 문화부장관·심사위원장), 김성곤(한국문학번역원장), 이승훈(세한대 총장), 스티븐 캐페너(서울여대 교수), 고영훈(한국외대 교수)이 맡았다.

심사위원회는 그동안 고은 시인의 대표작 '만인보'를 비롯해 시, 소설, 평론 등의 저서 150권 이상 세상에 내놓고, 25개 국어로 번역된 작가의 세계적인 성과와 지지치 않는 창작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여 제2회 심훈문학대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에 참여한 김성곤 한국문학번역원장은 "독자들은 고은의 시에서 아직도 한국 근대사와 긴밀하게 맞물리는 시인의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치유 과정을 발견하게 되고, 시인과 더불어 우주적 명상과 사유의 세계로 침잠해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은 '독자들은 고은의 시에서 아직도 한국 근대사와 긴밀하게 맞물리는 시인의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치유 과정을 발견하게 되고, 시인과 더불어 우주적 명상과 사유의 세계로 침잠해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단정=최근수기자



도로공사, 대덕구 글로벌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도로공사, 대덕구 글로벌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지난 3일 대전대덕구 오정동 대덕구청 구민의 사랑방에서 저소득층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중인 대전시 대덕구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에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희
충남도교육청 장학관

새로운 일터에서 보낸 지 십여 일이 됐다. 어찌어찌 지나갔다. 십여 년 전 대전으로 출퇴근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정도 쯤이야 했는데, 예전 같지 않고 그게 쉽지 않다. 집에서 멀어진 일터 덕분에 동행 때의 고요함, 초가를 새벽공기가 전해주는 상쾌함. 그동안 맞볼 수 없었던 호사를 누리고 있다. 덩으로 오가는 길에는 물라보게 높아진 하늘, 하루하루 다른 빛으로 열리고 있는 풍경. 무성히 익어가는 게 있고 열렬히 짙어가는 것들이 있다. 계절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조금 많이 알게 해준다.

숨겨놓은 긴장이 가져다주는 벌미까지도 환동안 즐겨 보려 한다.

다른 때보다 일주일 여 빠르게 발표했던 인사 덕분에 그동안 주변은 물론, 차곡차곡 마음 정리를 해 오긴 했었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 청소하듯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들이던가. 알게 모르게 스며 든 미운 정 고운 정. 그러한 인연을 정리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기 마련이고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존재의 무상을 새삼 곱씹으며 뜨거운 8월을 마무리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중히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면 다 된다는 믿음이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는 꽤 오래 걸렸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사람으로 행복할 적 없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러한 마음을 들기까지도 한 톨. 꼭 그 마음을 읽어 준 남자가 있었다. 이별을 작가다. 그의 신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8월의 어느 날 품으로 찾아들었다. 그곳엔 여행을

하며 만난 예상치 못한 인연들과 쌓아 올린 삶의 풍경. 더욱 더 진하고 웅숭깊어진, 사람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동안 마주 찾아드는 휴일이 귀하고 고마운지를 모르고 살았다. 늦잠이 주는 달콤함, 맘껏 늘어질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느긋하게 차 한 잔 마시며 뜰 안에 느티나무 그늘 아래 서보니 가을임이 느껴진다. 하늘도 물라보게 높아졌다. 하늘이 높아지는 것은 여름이 그치고 어찌지 못하는 감성들이 침착하게 한 곳에 모이기 때문이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다. 아마도 그러한 곳이란 사람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을 해 본다. 어쩌면 내 속에서 깨내 놓은 두근거림일 수도, 어쩌면 나무가 차려놓은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 그것이 뭐가 됐든 요즘 무언가에 몸을 훌쩍 두들겨 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빠근하다.

같은 상황이라도 봄에 보는 것과 가을에 보는 것은 사뭇 다르다. 그것이 봄에 아련했다면, 가을엔 보고 싶다. 봄꽃에게서 뽀짝뽀짝 수줍게 웃는다면, 가을엔 떨어지는 것들 앞에서 마음이 흐릿해져 뽀짝뽀짝 나가는 기분이 든다. 봄에 몽글몽글해졌던 것들이 가을에는 몽글몽글해지니 말이다. 떠오르는 이름들이 가을 햇

살을 받아 대척 없이 눈이 부시다. 이처럼 세상 모든 소리가 심상찮게 들리면서 다시금 메아리치는 것은 가을이 하는 일이다. 문득 애뜻한 염서한 장쭈 보내고 싶어진다.

새터에서 모든 것이 낯설다. "낯설고 외롭고 서툰 길에서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 그래서 더 사람다워지는 것. 그게 여행이라서" 이별을 작가는 그렇게 말했다. 삶도 다를 바 없다. 오늘 나는 어떤 누구와 공연하는 날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어떤 마음을 내게 안겨줄까. 나는 또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 어떤 마음을 안겨줄 수 있을까.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에.

세상은 보기 나름이고 그 나름이 사람을 형성한다. 내가 지금 빠져서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나를 설명해 줄 것이다. 나는 지금 새 일터에서 새로이 만난 인연들. 그들이 한 공간에서 들려주는 숨소리, 이야기, 마음결, 뭐 그런 것들의 맛을 느끼는 재미로 이 가을을 시작하고 가을을 보내게 될 것 같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주어진 걸 적절하게 취하고 나머지는 환원하는 것, 나를 위한 소비보다 남을 위한 나눔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멋지게 사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설

추지도 침몰사고로 본 안전 불감증

추지도 인근해역에서 어선이 전복되어 현재 16명이 사망하고 3명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지도 침몰사고의 근원적인 문제는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의 정황으로 판단해도 일부과정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불감증이라는 비난을 면치 어려워 보인다. 출항하는 돌고래호 배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 기본적인 탑승인원 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배의 침몰이나 전복 등 비상시에 대비하는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월호 충격이 체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해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추지도 침몰사고의 그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조사하여 일반백제함으로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건의 발단은 추지도 인근에서 낚시 관광객 등 약 20여명이 전남 해남으로 낚시를 가다가 동선이 두절된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로 추정되는 배가 6일 오전 6시 25분경 추지도 남쪽의 무인도인 섬생이섬 남쪽 1.2km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다. 그러나 정확한 승선 인원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몇 명이 실종 상태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해경은 해군 합정함과 민간 어선 등의 도움을 받아 사고 해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도 실종자 구출에 만전을 기하라며 안전처를 독려하면서 사건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세월호 악몽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침몰한 돌고래호는 이날 날씨가 점점 더 나빠지자 추자항으로 회항하던 돌고래1호 선장이 오후 7시 44분과 46분에 돌고래호 선장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돌고래호 선장은 '잠시만'이라는 짧은 대답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돌고래1호는 오후 7시 50분경 추자항에 도착하여, 계속 돌고래호에 연락했으나 받지 않아서, 오후 8시 40분경 제주해경 추지안전센터에 동선 두절 사실을 신고했다. 추지안전센터는 오후 9시 3분경 제주해경 상황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돌고래호의 위치는 배에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5일 오후 7시 38분경 추지도 예초리(추자) 북동쪽 500m 해상인 것으로 마지막 확인됐다. 해경은 V-PASS로 확인된 돌고래호의 마지막 위치와 탑승객 휴대전화의 최종 발신 위치 등을 파악해 일대 해역의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야간인테다가 추지도 인근 해역에 비람이 초속 9~11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2~3m로 높은 것은 물론 비까지 많이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돌고래호는 동선이 두절되고 11시간여 뒤인 6일 오전 6시 25분경 추지도 남쪽 무인도 섬생이섬 남쪽 1.1km 해상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다. 해경은 돌고래호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도록 인근 바위에 결박 조치했다.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된 사람은 사망자 10명, 생존자 3명 등 총 13명이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추지도 주변 해역 곳곳에서 발견됐고 생존자 3명은 뒤집힌 배 위에 있다가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구조됐다. 문제는 생존자나 실종자들이 대부분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 또 이들 외에 나머지 승선자는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돌고래호 탑승 인원이 정확하지 않아서 실종자가 몇 명인지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이다. 돌고래호가 출항신고하며 제출한 승선원 명부에는 22명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 중 13명은 승선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4명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생존자 3명은 승선한 명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월호의 악몽을 또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 사고 원인은 기상 악화 또는 물속 밧줄 등에 배가 걸렸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존자의 인터뷰에서 "배가 이동 중이어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배의 시동이 꺼지면서 선장이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 와중에 배에 물이 들어왔다"며 "내가 맨 마지막으로 배에서 빠져나갔고 동시에 배가 뒤집혔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 "생존자 3명 이외에 다른 관광객도 뒤집힌 선박 위에 올라와 있었으나 강한 풍랑에 탑승자 일부가 떨어져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한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승객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고 옆에 놔두었다는 것이다. 위급상황의 판단이나 신고체계도 석연치 않고 승선한 인원도 정확하게 모르는데다가, 풍랑속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운행하다가 침몰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관측된다. 한마디로 안전 불감증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이아말로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일반백제로 다스려야 한다. 안전처를 설립한 이유를 두 번 다시 잊어서는 안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자수첩

여성 취업·창업박람회 숫자채우기에 급급



이영호
행정국장

지난 3일 대전시청 1·2·3층에서 열린 2015대전여성 취업·창업박람회가 사전준비소홀 및 양질의 구인확보보다 일용직 일자리 등 단순일자리에 취업을 알선으로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혈세만 낭비한 생생내기

용 박람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시는 명실 공히 중부권 최대의 여성전문 취업·창업박람회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는 183개 기업체가 참여 당일 410명이 취업했다고 발표했지만 박람회 행사장에는 동원된 고교생들로 붐볐으며 오후 들어 과장 분위기에다 구인기업 부스에 곳곳에 빈 자리가 아침부터 보이는 등 시의 발표는 숫자채우기에 얼마나 급급했나를 입증하고 있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했지만 홍보, 참여인원, 구성면, 구인기업참가 및 구인인력 확보 등에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관계자들의 무성의 업무연찬부족, 센터관리 실패, 시민 혈세 낭비란 지적이 등

이 실패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가두 현수막 조차 때늦게 부착했으며 벽보광고 및 지하철 광고는 아예 볼 수 없었으며, 오는 15일 개최되는 일자리종합박람회가 먼저 홍보에 착수하여 시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했다.

또한 박람회는 기업들의 참여자 배치등으로 인한 부담과 구인요소 발생을 감안해 최소 한달전부터는 사전준비를 해도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판에 이번 박람회는 12일 간의 짧은 준비기간으로 행사 운영 상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처럼 수박 겉핥기 식의 박람회는 양질의 취업보다 숫자만 채우는 생생내기용 박람회는 시민들의 일자리정책에 불신을 초래할뿐 이며 보다 알차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노력하는 열정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포격도발로 전국민이 긴장하고 불안해 하고 군 또한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87명의 장병이 전역을 머무는 초긴장 상태에서 이번 박람회를 주관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행사 2주전 전직원들이 아우성으로 제주도를 1박으로 다녀온 것이 밝혀지면서 해도 너무 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성 취업 및 창업만을 위한 행사를 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15일 에 개최되는 일자리 종합박람회로 많은 혼선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미숙된 부분 보완점을 찾아 여성 취업 및 창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강 칼럼

위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최준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종합검진센터 내과 과장

위암 예방의 핵심은 위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선별검사를 통해 위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암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은 지속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생활습관의 교정에 의한 암 예방 효과를 의학적으로 규명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식이요법을 포함한 활발한 신체활동,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간접흡연 회피 등의 생활습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연, 그리고 간접흡연 피하기

흡연은 담배 연기가 직접 닿는 입안, 후두, 기관지, 폐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는 부위인 위에도 암 발생을 촉진하는 영향을 미친다. 많은 연구자들이 위암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흡연을 지목하고 있는데, 흡연하는 사람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에 걸릴 위험이 1.6배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 반대로 담배를 피우다가 금연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흡연한 사람들에 비해 위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따라서 금연은 가장 확실한 위암 예방법이며, 간접흡연도 피하는 것이 위암 예방에 좋다.

과도한 염분 섭취 자제,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 점막을 손상시켜 발암 물질에 취약하게 하고, 지속적인 자극으로 위축성 위염을 일으켜 위암의 발생을 촉진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자극을 중화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

이 좋다.

음식물 냉장보관

고농도의 질산염이 들어있는 건조, 훈제, 염장 음식, 조미료 방부제, 색소 등을 장기간 섭취하면 위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는 음식 속의 질산염이 부분적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각종 세균에 의해 발암물질인 아질산염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음식물을 냉장 보관하면 변질 속도가 늦춰지므로 결과적으로 위암의 발생빈도를 낮출 수 있다.

정기적인 위장검사

위장을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은 위내시경과 위장조영촬영이 대표적이다. 위내시경 검사는 위 안의 기포를 제거하는 약을 마시고 목에 맞춰한 후 위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약을 주사한 뒤, 끝에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입으로 집어넣어 식도, 위, 십이지장의 상태를 직접 관찰한다. 화면을 통해 위안을 직접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검사 중 어떤 병변을 발견하면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위장

조영촬영검사는 조영제인 바륨과 발포제를 마신 뒤 X선 촬영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발포제는 탄산가스를 발생시키며 팽창해 바륨을 위벽에 도포하는 역할을 하는데, 탄산가스는 검고 바륨은 하얗게 나타나므로 위벽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검사 중 큰 불편감이 없고 시간도 10분 정도이므로 비교적 간편하다.

위암은 뚜렷한 위험인자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위암이 호발되는 곳에서는 40세 이후부터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나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위내시경에서 위암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소견이 나타나면 정기적인 위내시경검사가 필요한데, 주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궤양, 위의 선종성 용종 등이다. 이런 소견이 있으면, 병변의 정도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추적검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평소 건강생활 실천과 함께 정기적으로 나이, 건강상태, 가족력 등을 고려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위암 예방의 지름길이다.

시의 향기



이채작

중년의 나무

누구나 자신만의 나무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우고 보살피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연한 잎새들의 꿈이 자라는 삶의 나무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참아낸 눈물자국이 곁이 고운 나이테로 새겨진 인생의 나무

이른 새중년의 나이 이웃 나무의 이름에도 귀 기울이며

각양각색의 바람과 여유롭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믿음직한 성숙의 뿌리로 자랐습니다

이따금 살아가는 일이 험겨울 때면 그 푸른 나무 아래에 서봅니다. 춤추듯 나무끼리는 잎새들의 몸짓에 지나온 세월을 기다리며, 좀 더 견뎌내리라는 굳은 약속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생애 불꽃에도 때로는 꺼져 갈 것만 같은 불안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삶은 고쳐의 연속일지라도 새로운 각오로 다시 서보는 중년의 나무 아래에서, 오늘도 한 그루 소망의 나무를 심습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r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즈니스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경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선서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주 관 | 大田투데이

후 원 | 한국장미연구소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주식회사 대생 ENT 대전지사 손 손 용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논산 계룡시 교육지원청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청양군 국립공주대학교 계룡시

예산군산림조합 한국장미연구소 대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지사